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6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양애경 · 김인순 · 이성숙 · 이춘아 · 최선경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연구책임자: 양 애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인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성 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이 춘 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최 선 경 (보물찾기여행 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발전과정에서의 여성 활약상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여성박물관 건립 움직임에 적극적이고, 기 건립된 박물관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개의 여성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고 14개가 건립추진 중인 가운데,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세계여성박물관대회도 올해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기존 역사박물관들의 몰성적(沒性的)구성을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큰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에 산재한 의식주 생활유물 중심의 여성관련 박물관들은 흔히 몰역사적(沒歷史的)이어서, 역시 역사 속 여성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역사 속 여성 찾기’이자, ‘여성 속 역사 찾기’에 다름 아닙니다.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은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단지 알고 있을 뿐인 여성문화유산은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현상에 지나지 않아, 어떠한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문화자원이자, 역사적 및 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인식에 기반한 여성정책수단으로 여성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새롭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정책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녀평등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문화 관련의 대표적 정책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사전시관」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동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한층 강화하고 무엇보다 세계적 추세와 국가적 위상에

결맞는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여성계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여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구범위와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을 맡아 최선을 다해준 양애경 연구위원 외, 김인순 전문연구원, 이성숙 교수, 이춘아 대표, 최선경 대표 등 공동연구진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에 대한 범여성계 차원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한편으로 향후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향한 세계적 움직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여성사전시관」의 개관(2002.12) 10주년을 맞아, 구체적·직접적인 對民접촉의 ‘체감형 여성정책사업’으로서 정책적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momentom)를 모색할 필요 있음.
- 정부내 모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정책 관련 주체들간 유기적 결합과 연계를 통해, 「여성사전시관」을 비롯한 제 사업들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더욱 높일 방안 필요.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발전과정에서의 여성 활약상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여성박물관 건립 움직임에 적극적이고, 기 건립된 박물관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상의 배경에서 여성문화유산'기반의 국민체감형 정책사업으로서 정책적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외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여성사전시관」의 혁신적 운영 방안으로서,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 왜 필요한가?(필요성)
 -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현실성)
 - 세계 각국의 여성역사박물관·전시관 설립 현황
 - 특히 미국의 국립여성역사박물관(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NWHM) 건립 추진 사례
 -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내용)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추진방법)

- 관련법 제정
- 국내외 지지동력 확보
- 소관부처
- 박물관 건립(안)

○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 수집·분석
- 자문회의: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 미국 NWHM 및 유관 박물관 벤치마킹
- 공간 및 법률관련 전문 컨설팅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법안 관련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장소 관련

3. 연구결과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 대체로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ed) 전시 구성 경향을 보이는 한국의 주요 역사박물관들이나 몰역사적(沒歷史的) 전시경향의 여성관련 박물관들은 모두 역사 속 한국여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를 지님.
-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을 추동하는, 의미있는 문화자원인 여성문화유산을 여성정책적 및 문화관광정책적 맥락에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여성사’에 대한 인식 증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한국여성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여성계 요구가 높아짐.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과 내용(예시)

- 상설 전시관 5개: 여성의 생활, 여성의 일생, 여성인물, 여성운동사, 아줌마관
- 기획전시관 1개: 접근성이 취약한 여성관련 개인 박물관이나 대학 박물관과 연계, 테마전시 등 별도의 전시행사 기획함으로써 전시물의 풍부함과 다양화, 개인박물관과의 협력, 홍보효과 등의 win-win전략 기대

- 영상관, 체험공간, 강의실, 소극장 등 별도 설치
- 기존의 국립박물관 여성유물 대여 전시: 기존의 국립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에는 여성관련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드러나지 않은채 수장고에 묻혀 있음. 여성박물관이 이를 테마별로 대여 전시한다면 여성유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추진방법

[관련법 제정]

- (가칭)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설치근거 및 예산지원 근거 법령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법률 체제 내에서의 건립추진과 새로운 관련법 제정을 통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해서 법률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함.
 - 첫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례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주무부처 문화관광부) 하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도입 단계부터의 입법지원임.
 -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라면 국무총리 소속,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 이 경우 국회 입법절차(법제정) 없이 대통령령 정부입법으로 가능함.
 - 다만, 안정적 예산지원과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입법 규정 시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운영 및 예산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안은 실무추진단 구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력 집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임. 신속한 업무진행에 유리하지만,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범정부 추진사업이라는 정부 부처간 합의가 필요함.
- 둘째,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건립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안임.
 - 본 안의 특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부서로 건립추진 및 설립 이후 운영하므로 설립권한과 관리감독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집중됨.
 - 따라서 부지선정, 관련 재원마련, 전문운영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전시물에 대한 권한과 권리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장점이 있으나, 주무 부처의 업무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속도에 차이가 발생함.

- 현재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례인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원법률안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부지마련, 행정지원 및 권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재원조달계획, 기본시행계획 등 해당 입법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동일한 법률내에서 처리하며, 해당 주무부처가 포함 상임위원회로 회부됨. 따라서 미국법에 따른 사안별 상임위원회 분리와 별도 입법은 한국 입법 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본 관련법 입법 검토는 국립여성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 및 법제 일반사항에 관한 검토이며, 박물관 설립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화재 자료양여에 관한 법적권리 및 관리처, 예산지원, 책임관리주체 등은 내용이 결정된 후에 확정해야 함.

[국내외 지지동력 확보]

- 여성문화유산 관련 국내 인프라의 기능적 네트워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정책을 둘러싼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대표적인 국책기관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주요 인프라임. 이들 기관 각각의 미션에 부합하는 고유기능들간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연계망 형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유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도 필요.
- 민간 및 학술부문 여성사관련 인프라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한층 확산되어온 지역의 여성사연구 모임이나 관련 시설 등을 파악하여, 관계망 형성하고 교류협력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 여성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여성문화유산해설사들과의 조직적 연계 방안도 필요.
-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women in museum)가 주관하는 세계여성박물관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여성박물관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여성문화유산을 통한 국제적 교류·협력으로 국제적 지지 확보.

[소관부처]

- 여성역사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부 소관안과 여성가족부 소관안 등 두가지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
- 문화관광부 소관안: 박물관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한 설치안일 수 있겠으나,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추진 배경을 상

기할 필요 있음. 즉, 기존 박물관들이 역사 속 여성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추진의 출발점임을 고려한다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한 부처를 주관부처로 할 필요 있음.

- 여성가족부 소관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확산과 이에 기반한 여성 인식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산하에 위치시켜 안정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위 두안의 절충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에는 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음.

[NWHM 및 유관박물관 사례들의 시사점에 유의]

- 박물관을 통한 새로운 여성교육의 시도: 여성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여성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건립을 위한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박물관: 여성들의 문화적 성취, 업적물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의 역사와 문화를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주목할 필요 있음.
- 박물관 봉사자 활성화: 미국여성역사박물관,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의 경우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이는 여성들의 전문인력 활용과 인력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건축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도입: 외국의 경우 21세기 뮤지엄으로서 창조와 혁신,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의 환경박물관 Green Museum을 추구하는 것에 착안하여 한국의 국립여성역사박물관도 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냉난방을 비롯하여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임.

[명칭의 문제]

- 국립여성역사문화박물관 명칭이 바람직한 이유
 - 현재 한국내 여성박물관들이 여성들의 문화적 산물인 수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를 포함함으로써 박물관의 확장성을 기할 수 있음.
 - 이는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지지자원 확충 측면에서도 필요함.
 - 역사박물관은 시대연대에 따른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전시될 것임. 시대적 영향에 의한 여성들이 남긴 문화적 성취물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임. 여성, 인종, 소수민족 등의 경우 역사적 연대기 나 열보다는 특정집단이 정착해나가는 문화 적 특질이 더 중요하고 의미있을 수 있음.

- 국내외적인 최근 경향도 ‘역사문화’를 함께 병기함: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 일본의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 최근 설립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등 참고.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명칭이 더 바람직한 이유
 - 역사의 개념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인간 삶의 총체적 활동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화’를 명칭에 넣으면 오히려 그 중의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
 - ‘국립’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면서 세기를 넘어서는 시간성을 포괄해야 함. ‘문화’는 21세기의 키워드이지만 時流에 영합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국립’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려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로 충분함.

[박물관 건립(안)]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 및 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 리모델링에 의한 건립(안)을 제안함.
 - 건립위치: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 (국무총리실 소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기부 채납)
 -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법규 여부, 용도 변경 등 건립 타당성 조사 실시.
 - 법령 및 규제 저축, 용도 변경, 개보수 또는 신축 조사 등 확인
- 위치 선정 사유
 - 여성정책연구원 및 <여성공동의 장>이 접해 있어 부대시설 활용 가능
 - 비교적 일반대중의 접근성이 좋으며, 자연경관이 무난한 편
 - 현재 저조한 다목적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임.
 - 인근 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등)들과의 벨트효과 기대 가능
- 건립(예시): 설계 개요, 실별 면적표, 소요 예산, 설계 도면 등은 본문 참조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기대효과	6
II.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왜 필요한가?	7
1. 박물관의 젠더링(gendering): 역사 속 여성 찾기 & 여성 속 역사 찾기 ...	9
2.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	19
III. 외국의 사례	33
1. 여성박물관 설치를 향한 세계적 추세	35
2.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women in museum)	38
3. 미국여성역사박물관(NWHM: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건립 추진 사례	43
IV.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	63
1. 박물관 전시 방향 및 구성	65
2. 여성박물관 전시, 어떻게 할 것인가(예시)	68
V.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77
1. 관련법 제정	79
2. 지지자원 확보	91

3. NWHM 및 유관 박물관 사례들의 시사점에 유의한 건립	95
4. 박물관 건립추진 방안	98
 ■ 참고문헌	109
 ■ 부 록	111
<부록 1> 부표	113
<부록 2> 여성역사박물관 설립에 관한 법률안 [미국]	123
 ■ Abstract	143

표 목 차

<표 II-1> 전국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전시관·박물관 현황	17
<표 II-2> 여성문화유산 관련 전시관·박물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18
<표 II-3> 2011년 외국 관광객 현황	22
<표 II-4> 2011년 외국인 선호 관광지 순위(중복응답)	24
<표 II-5> 2011년 국공립박물관 이용현황	27
<표 II-6> 여성관련 박물관 이용현황	27
<표 II-7> 2010년 국립박물관운영비 현황	30
<표 III-1>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 참여 국가	38
<표 III-2>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 국제조정위원회 대표자 명단	42
<표 III-3> 관련 법안 제출하기까지 활동 및 사건 연표	46
<표 III-4> NWHM 건립 추진을 위한 최근(2011) 주요 활동	55
<표 IV-1> 여성사박물관의 분야별 특성화 전략	67
<표 V-1> 정부부처의 유관 박물관 현황	93

그림 목 차

[그림 II-1] 외국 관광객 증가 추이	22
[그림 II-2] 2011년 외국 관광객 현황	23
[그림 II-3] 연도별 관광활동 추이	28
[그림 II-4]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정책	29
[그림 III-1] 대륙별 여성 박물관	35
[그림 V-1] 여성문화유산 관련 국내 인프라의 기능적 네트워킹 개념도	9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기대효과	6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여성사전시관」의 개관(2002.12) 10주년을 맞아, 구체적·직접적인 대민(對民) 접촉의 ‘체감형 여성정책사업’으로서 정책적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momentom)를 모색할 필요 있음.
 - 「여성사전시관」은 남녀평등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문화 관련의 대표적 정책사업이자, 국민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현장형 여성정책 사업.
 -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통해 「여성사전시관」 사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미흡한 정책활용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옴.
 - 여성부직영(2002-2003) → 민간위탁운영(2004-2011)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운영(2012)
 - 민간위탁 운영기간 동안 관람 연인원은 20,000~35,000명 수준
 - 지난 10년간 들인 예산은 약 84억 정도(개관 초기 이후 연 4억 내외).
 - 상설전과 기획전의 테마로 가시화되는 콘텐츠에 있어서도, 사업의 정체성이나 운영 취지 등을 둘러싼 비판적 의견 많음.
 - 최근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개관 10주년을 맞은 「여성사전시관」의 혁신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 정부내 모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정책 관련 주체들간 유기적 결합과 연계를 통해, 「여성사전시관」을 비롯한 제 사업들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더욱 높일 방안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한 바 있는 「한국여성사 지식정보 시스템」(2001-2004) 및 「여성관련 지식콘텐츠 아카이브」(2008-2011) 등 사업과 연계

4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각종 교육과정과 연계
 -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사이버역사관」 연계
 - 각 지역의 여성사관련 전시·박물관 등과 연계
- 「여성사전시관」의 정책적 활용에 주목한 본격적 선행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음. 여성문화유산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의 발제물 수준임.
- 본원에서도 그동안 「여성사전시관」 발전방안으로서, 「국립 여성 역사와 미래관(가칭)」(2005년)과 「한국여성역사관(가칭)」(2009)으로의 발전 방안을 원내 논의절차를 거쳐 여성부에 공식 제안한 적은 있으나, 역시 관련 연구는 없었음.
 - 현재 개관 10주년 기념세미나('12.7.4)에서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의 전환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수준임.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발전과정에서의 여성 활약상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여성박물관 건립 움직임에 적극적이고, 기 건립된 박물관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의 여성박물관 건립되어 있고, 14개가 건립추진중임: 제4차 세계여성박물관대회(12.5)개최
 -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여성박물관을 갖춘 주도 여럿 있는데 더해, 「국립여성역사박물관」(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NWHM) 건립을 위한 법안(H.R. 1700-NWHM을 워싱턴 DC물에 건립)이 하원을 통과하고(2009.9) 이어서 건립부지 확정을 위한 관련 위원회도 통과(2011. 9)하는 등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가장 최근에도 건립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이 제출됨 (2012.9.14).
- 이상의 배경에서 여성문화유산'기반의 국민체감형 정책사업으로서 정책적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외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여성사전시관」의 혁신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히 설립 당시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기관 발전방안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 전환-을 통해 전시관 혁신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여성사전시관」의 정책활용 강화에 유의하여, 향후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함에 중점을 둬. 이를 위해 실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연구내용을 구성함.

가. 연구내용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 왜 필요한가?(필요성)
 - 현 여성사전시관을 비롯,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나 다양한 생활사 박물관 및 전시관 등의 한계에 근거한 필요성
 -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
-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현실성)
 - 세계 각국의 여성역사박물관·전시관 설립 현황
 - 특히 미국의 국립여성역사박물관(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NWHM) 건립 추진 사례
-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내용)
 - 전시 방향 및 구성
 - 전시 세부계획(안)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추진방법)
 - 관련법 제정: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후,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법

6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 제정 후, 그에 근거해 건립 추진: 미국의 'NWHM 건립 법안'(2011.9 하원위원회 통과), 'NWHM 건립위원회 관련 법안'(2012.9 제출) 등 참고
- 지자원 확보: 여성단체, 여성사학회, 여성학회 등 여성NGO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원 확보
 - 세계 여성역사박물관 글로벌 네트워크(Women in Museum) 및 전국 각지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시설과의 연계
 - 박물관 건립 추진방안

나.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 수집·분석
- 자문회의: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 미국 NWHM 벤치마킹
 - 건립 추진이나 관련 법안 등 추진현황은 인터넷 검색자료 분석
 - 상·하원의 여성의원들과 NGO들의 협력추진이나 법안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은 대면의 심층면담에 의함
- 공간 및 법률관련 전문 컨설팅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장소 관련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법안 관련

3. 기대효과

- 「여성사전시관」사업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관련법안 발의를 위한 정책자료 제공
-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 「여성사전시관」사업운영의 개선

II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왜 필요한가?

1. 박물관의 젠더링(gendering): 역사 속
여성 찾기 & 여성 속 역사 찾기 9
2.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 19

1. 박물관의 젠더링(gendering): 역사 속 여성 찾기 & 여성 속 역사 찾기

가. 기존 역사박물관의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ed) 구성 극복

-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역사박물관들은 우리 역사 속 여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한계를 지님. 이는 몰성적(沒性的) 역사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우도 기존 역사박물관들의 몰성적 구성을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사 이래 인류 역사의 주체는 여성과 남성이었음에도, 오랫동안 여성의 역사는 왜곡, 굴절, 은폐되어 사실상 여성의 역사는 부인되어온 데서, 여성의 눈으로 역사 보기(여성사) 출발함.
 - 여성사란 여성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을 드러내는 역사서술로, 여성의 경험과 활동은 과거 남성 중심의 이분적 사회에서 볼 때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역사성을 담보할 수 없어 기존의 역사학에서 배제되어 왔음. 이로 인해 과거를 거쳐온 여성들의 삶이 역사적 변화와 함께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기존의 역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 결국 여성사는 그간 역사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복원하여 진정한 인간의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인 부산물로서 오늘날의 한국 여성이 있기까지, 전통과 역사, 사회에서의 역할, 또는 여성의 고유한 감각과 창의성에 의한 예술세계 등 다양한 여성문화를 조명할 필요 있음.
- 또한 박물관에 대한 정의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기존의 주요 박물관들은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박물관은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

10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설”(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정관 제2장)

- 박물관은 ‘궁극적으로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인류에 의해 생산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교육하는 기능 수행’(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이 역사 속 한국 여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전시/아카이브/교육문화활동/네트워크 등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봄.
-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장은 총 6개의 관과 50개의 실로 구성 - 11,340여 점의 유물을 전시 -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품 문화유산 전시 - 역사자료, 미술, 서예, 회화, 불교회화, - 해외 유명박물관 소장품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생활문화의 역사적 기반이해 - 3개의 상설전시실과 야외전시장을 운영 - 한민족 생활문화의 폭넓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상설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위안부, 여성독립군, 신여성 등 일제 강점기 여성들의 삶 · 산업화, 민주화시대의 경제문화 활동 및 스포츠 분야 여성의 활동 · 탈북여성, 결혼이주 등 소외된 여성의 삶 - 한국 여성사와 세계 여성사, 동양 여성사 비교 전시

※ 국립중앙박물관이 여성의 역사적 역할 설명에 소극적이었던 사례
[세계기록문화유산 ‘직지’ 설명 관련]

-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2009년 역사관이 전면 개편되기 이전에는 인쇄실에 있던 세계기록문화유산 ‘직지’에 대한 설명에서, 직지의 제작 경비를 제공하여 책의 뒷부분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묘덕’(비구니)의 이름이 당시 전시패널에는 빠져있었음. 제작에 도움을 준 제작자들의 이름 옆에 ‘시주 비구니 묘덕’이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그녀의 이름 부분은 꼭 빼놓고 전시한 것.

Ⅱ.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왜 필요한가? ●●● 11

- 그렇지만 최근 개선된 고려관에서는 직지를 세상에 알린 여성학자 ‘박병선’ 박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고, 책의 뒷부분에 수록된 ‘묘덕’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강조함.
- 말하자면 ‘직지’ 제작에 기여한 여성에 대해서도 또 오늘날에 와서 직지를 찾아내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여성학자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은 셈.
- 여성이 활동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 당장은 왜곡이 아닐 수 있지만, 관람객들이 남성들의 업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관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성중심의 역사관에 물들게 될 것임. 즉, 물성적 관점이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따라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는 점을 직시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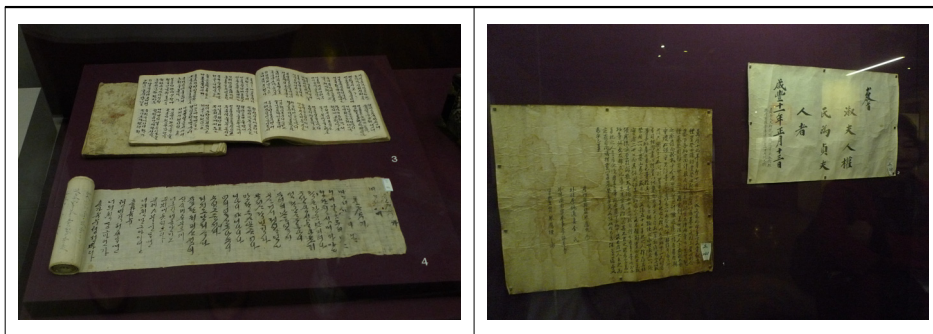


자료 설명: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이 2009년 개편되면서 비로소 『직지(直指)』의 시주자 묘덕의 이름이 전시된 사례

12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 국립민속박물관이 여성의 역사적 역할 설명에 소극적이었던 사례
[‘한국인의 일생’ 전시 관련]

- 국립민속박물관은 비교적 여성관련 생활상이 많이 전시된 편이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3전시관 [한국인의 일생]의 경우,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일생을 다루었다고 하였으나, 내용은 대부분 양반 남성의 출생과 관례, 과거시험과 벼슬을 중심으로 다룸.
- 반면 여성의 역사는 한 코너에 “여성의 역할”이라고 해서 한글가사, 정부인 권씨 교지 등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 말하자면 전시관 이름을 ‘양반남성의 일생’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정도임.



자료 설명: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일생’ 전시물 중 여성의 역사는 한 코너에 “여성의 역할”이라고 해서 한글가사, 정부인 권씨 교지 등에 지나지 않음

- 아카이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가능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박물관 관련 국내·외 전문 도서 및 디지털매체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 -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박물관 관련 정보제공 - 현재 박물관 도서관에는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박물관 관련 전문도서, 학술지 등 약 120,000여권의 책 소장 - CD-ROM, DVD, VIDEO TAPE 등의 디지털매체자료 약 2,000여점을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구입·기증·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 자료는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 후 민속자료 분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민속 현장의 사진, 필름, 영상 자료를 확보 - 민속학 전문서적, 다양한 멀티미디어 민속자료정리·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사 관련 유물 등 박물관 자료 및 구술 자료 조사, 수집 및 보존 - 여성사 관련 인쇄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 국내외 여성관련 자료 온라인 링크 및 정보제공

※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여성관점 반영하지 못한 사례
[여성유물에 관한 개념 부족]

- 기존 국립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유물은 수천가지가 넘는데, ‘여성’이라는 검색어에 검색되는 유물은 중앙박물관의 경우 3,178점 중에서 10개이고 민속박물관에서는 81개가 검색될 뿐임. 게다가 중앙박물관의 10개는 모두 다른 나라 여성의복.
- 이는 기존 박물관들이 여성유물에 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물론 유물이 여성의 것인지 또는 남성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관련된 유물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유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냥 수장고에 묻혀버릴 우려가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3178점에 대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0개 출력

적용

유물명 : 여성 의복(카미즈)(黒地刺繍幾

유물번호 : 증(贈)-4179-000

국적/시대 : 중국-예멘

상세



무신도(巫神圖)-삼불



얼레빗



수저집

자료설명: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성’으로
검색결과(10개)

- 교육문화활동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가능한 내용)
교육	<p>다양한 성인대상 교육</p> <p>어린이 대상 교육</p> <p>지식공감형 교육</p> <p>자기주도형 교육</p> <p>체험학습형</p> <p>특별학습형</p> <p>전시연계교육</p>	<p>- 성인교육, 소외계층, 다문화교육 운영</p> <p>- 전통예술향을 체험 교육</p> <p>- 어린이 전통문화교실 운영</p>	<p>과거를 담아 현재와 미래 삶의 지침이 되는 여성사 평생교육</p> <p>- 역사적 통찰력을 통한 인문학적 미래 삶에 대한 상상력 고양</p> <p>-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행복한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p> <p>- 성인지 관점의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p> <p>- 주5일제 시행으로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 실시</p>
문화 마당	<p>- 물품보관소나 휴게 공간</p> <p>- 극장 ‘웅’에서는 항상 흥미로운 공연</p> <p>- 박물관 주변 수목이 우거진 공원</p>		<p>- 미술, 음악, 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공간 제공</p> <p>-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연구세미나실 제공</p> <p>- 각종 여성사 및 여성문화활동 인큐베이터실 운영</p>

※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여성관점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 [남성 중심의 역사교육]

- 박물관교육에 참가하는 성인 교육생들의 60% 이상이 여성. 박물관 대학을 비롯하여 은하학교, 소외계층, 다문화 교육 등 교육대상은 남녀 구분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대부분이 여성임.
-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여성의 이야기를 빠뜨리는 경우 많음.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 중심의 역사를 배우는 것에 익숙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함. 역사교육에서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음.
- 여성박물관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 여성사에 대한 박물관 대학을 열고 여성사를 이해하기 위한 체험교육, 양성평등 역사관을 심어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또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대전에서의 김호연재 발굴에 의한 마당극 공연과 같은 지역여성문화유산 발굴 지원/여성사 연구 모임, 학습동아리, 여성문화 기획 모임 지원/여성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발전시킨 작품전시 및 공연/아마추어 작가전, 여성영화제 유치/아마추어 연구자들, 여성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 워크숍 개최 등을 들 수 있음.

- 네트워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시, 가능한 내용)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의 박물관 교류 - 이집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교류 - 세계유수의 박물관들과 교류 -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 수준의 전시를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명박물관에 한민족문화실 및 해외문화원의 한국실 설치를 지원- - 세계 곳곳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장 제공 - 외국 박물관의 전문가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 전문가 국제교류, 국제세미나 등의 국제교류 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womeninmuseum)과의 교류 협력 - 국내외 여성관련 단체, 여성해설사들간의 네트워크/국내 활동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국제워크숍 개최 - 여성사의 국제교류 -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제적인 걸기코스 등 소개 -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여행 소개 - 외국의 여성박물관 투어,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

나. 여성관련 박물관의 몰역사성(沒歷史性) 극복

-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박물관은 주로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음. 이들 박물관들은 주로 의식주와 관련한 여성들의 생활유물과 공예품 중심의 전시기능에 집중되어 있음. 간혹 기획전을 통해 생활문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긴 하나, 역사속에서 여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의미를 재해석하는 활동이나 교육, 체험 등의 기능 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즉, 역사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함.
- 1970년대 초반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여성생활관련 박물관들이 개관되기 시작함.
- 1970년대 중반기부터 1976년 한국자수박물관, 1977년 여성학박물관, 1979년 태평양박물관(현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등이 개관되었고, 2006년 제주해녀를 주요 콘텐츠로 한 해녀박물관, 2012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개관한 전쟁과평화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전국의 여성관련 박물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여성 생활관련 전반을 다루고 있는 곳, 둘째는 여성 생활과 관련한 특정 부분을 특화시킨 곳, 셋째는 지역적 특성을 담

보하고 있는 곳.

-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17곳, 경기4, 제주2, 전남1, 대구1 등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박물관 전시 유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학과 수집가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표 Ⅱ-1〉 전국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전시관·박물관 현황

테마	명칭	설립 연도	소재지	설립 주체	특성
여성 생활 전반	세종대 학교박물관(전 수도여사대)	1959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	여성생활관련 유물
	숙명여대 박물관	1971	서울 숙명여대	대학	전통민속공예품, 민속자료, 자수, 장신구, 고서
	덕성여대 박물관	1971	서울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대학	조선시대공예품, 복식, 서화, 고서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1	단국대 죽전캠퍼스	대학	복식
	동덕여대 박물관	1977	동덕여대 여성학센터	대학	전통민속공예자료
	여성생활사박물관	2001	경기도 여주	개인	여성생활관련민속유물, 직물, 염색
	북촌생활사박물관	2003	서울 종로구	개인	여성생활관련 유물
	여성사전시관	2002	서울여성가족재단	중앙정부	여성역사·문화, 기획전
	전남여성박물관	2009	전남 여성플라자	전남도청	여성규방공예
여성 생활 특화	한국자수박물관	1976	서울 강남구	개인	복식, 자수
	옹기민속박물관	1991	서울 강북	개인	옹기
	떡 박물관	2002	서울 종로구	개인	떡기구, 떡 제조법
	한과문화박물관	2008	경기 포천시	개인	한과 기구 등
	가회박물관	2002	서울 종로구	개인	민화, 민속자료
	담임복식미술관	1999	서울 이화여대	대학	조선시대 장신구, 의복, 수공 예품
	풀무원김치박물관	1986	서울 강남구	기업	김치, 김치체험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2003	서울 강남구	기업	화장역사, 화장용기
	한국천연염색박물관	2009	전남 나주시	공립	염색

18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테마	명칭	설립 연도	소재지	설립 주체	특성
	닥종이인형박물관	2006	제주 서귀포시	개인	닥종이 인형
	박물관 수	2010	대구 수성구	개인	자수
	박을복자수박물관	2002	서울 강북구	개인	자수
	보나장신구박물관	2007	서울 종로구	개인	장신구
	태평양 박물관	1979	경기도	기업	여성문화, 차문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2012	서울 마포구	여성단체	위안부여성 기록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역사박물관	2008	서울 중구	가톨릭	수녀관련 물품
지역 특성	해녀박물관	2006	제주 구좌읍	제주도청	여성, 해녀문화

- 박물관 운영의 주체는 여자대학교(세종대학교박물관(전신 수도여사대), 동덕여대 여성학박물관, 숙명여대박물관, 덕성여대박물관 등), 여성단체 (전쟁과 평화박물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지자체(해녀박물관, 전남여성문화박물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여성사전시관), 기업(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수집에 의한 사립박물관임.

〈표 II -2〉 여성문화유산 관련 전시관·박물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운영주체	박물관
중앙정부	여성사전시관
지자체	해녀박물관(제주), 전남여성문화박물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나주)
대학	세종대학교박물관, 숙명여대박물관, 덕성여대박물관, 여성사박물관(동덕여대), 석주선 기념박물관(단국대학), 담임복식미술관(이대박물관 내 전시관)
기업	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 아모레퍼시픽박물관, 풀무원김치박물관
단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역사박물관
개인	한국자수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옹기민속박물관, 떡 박물관, 닥종이인형박물관, 박물관 수, 박을복자수박물관, 보나장신구박물관, 복춘생활사박물관, 자연염색박물관, 한과문화박물관

- 이상의 우리나라 여성관련 박물관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의식주와 관련한 생활상을 다룬 박물관이 대부분이며, 개인수집에 의한 사립운영이 다수임. 따라서 여성들의 일과 노래, 놀이 등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전승되어온 문화유산, 지역의 여성인물들이 남긴 시, 서화 등을 정리하고 이들 문화유산을 전승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전시, 그리고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여성들이 남긴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여성박물관 건립이 필요함.

2.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

가.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의 場 필요: 여성정책적 측면

-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을 추동하는, 의미있는 문화자원인 여성문화유산을 여성정책적 맥락에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임.
 - 여성문화유산은 역사 주체로서,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 즉,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습득·계승한 문화적 요소 중, 현재를 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
 - 단지 알고 있을 뿐인 여성문화유산은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현상에 지나지 않아, 어떠한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함. 오늘의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문화자원이자, 역사적 및 문화적 주체로서의 여성인식에 기반한 여성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필요
 -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새롭게 풍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정책의 지향점에 부합함.

- 국가적차원의 여성발전 종합계획이 구체화된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이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이르기까지, 여성문화활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사업이었던 「여성사전시관」사업의 발전적 승계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임.
- 「여성사전시관」은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설정된 문화분야 정책 과제 ‘5-3-4. 여성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의 수행을 위해 여성부가 실시계획 및 실행을 주관한 유일한 정책사업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2차에 비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역시 ‘5-1. 평등문화 확산’의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함.
- 「여성사전시관」은 국민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사업으로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흡한 정책활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소재지: 2002. 12. 9.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 위치. 건물 임차형태.
 - 운영: 시설, 인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열악함. 특히 매년 소규모 예산으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취약한 데다, 시작 시점부터 다양한 기능이 확대된 박물관 시설과 전문인력, 운영구조를 갖추지 못함.
 - 주요 기능과 한계: 자료들을 나열하는 단순한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같은 전시관의 기능만으로는 급변한 사회현상과 여성문화의 변화속에서 그 미래가치를 탐색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펼쳐 나갈 수 없어, 전시관의 프로그램이 주목받기 어려움.
 - 지난 10년간의 전시관 운영에 대한 의견들: “지난 10년간 여성사전시관은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였으나, 역사 속에서 남성들과 함께 가정과 사회를 지켜나간 긍정적인 여성 활동의 역사는 담아내지 못함”/“가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 졌던 여성들의 열정, 미의식을 탐색하는 작품전시가 소규모로 기획되었으나 여성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려 그 내용은 미래 지향적인 여성들의 꿈과 의지를 펼쳐보이는 데에는 미약함”/“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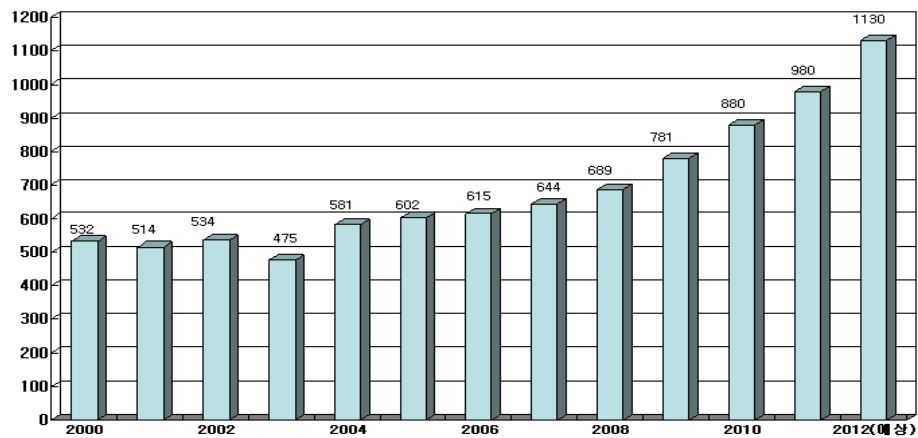
는 수집되고 조사 연구된 자료들의 긍정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끌어내는 데에 필요한 발전적인 전시기획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 관리, 국제사회와 소통 필요함” 등.

- 따라서 「여성사전시관」의 혁신 운영을 위해 그동안 안팎으로 제기되어온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시점임.
- 상설전시장 위주 전시형태의 취약성 보완
- 관람객의 양적 확대 및 여론 형성층 유치
- 콘텐츠의 수정 및 확충
- 전문인력 확충 및 문화자원봉사 인력 활용 활성화 등

나. 한류 콘텐츠로서 여성문화자원 활성화: 문화관광정책적 측면

- 외국 관광객 1,000만 시대, 질적 변화 필요
- 2012.11.21.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1,000만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관광대국의 하나가 되었음. 이제 관광정책이 양적 증가에서 질적 전환으로 수정되어야 함. 문화관광 콘텐츠가 다양하고 수준 높아야 양적으로 성장한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정책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22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2.11.21일자

[그림 Ⅱ-1] 외국 관광객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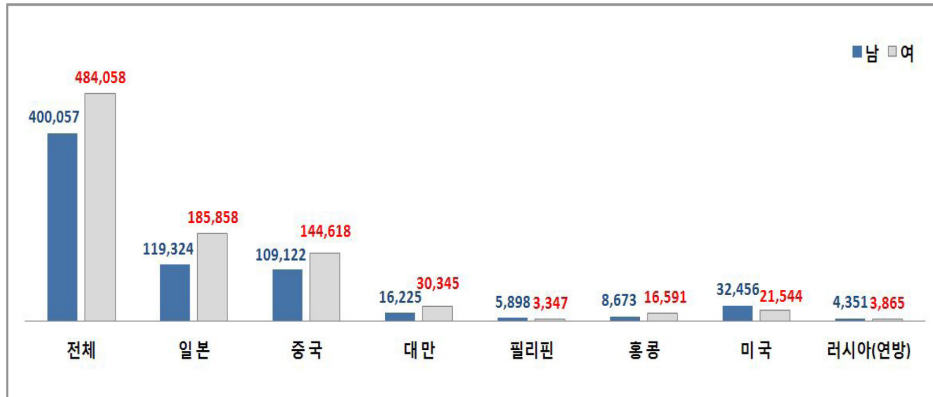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관광을 목적으로 찾은 외국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특히 영어권보다는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이는 드라마, K-POP 등 한류의 영향 때문임. 이들이 방문하는 목적은 주로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쇼핑을 위한 것.

<표 Ⅱ-3> 2011년 외국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전년대비 증감율))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필리핀	러시아
3,289 (8.8)	2,220 (18.4)	662 (1.3)	428 (5.4)	281 (22.9)	337 (13.4)	155 (2.7)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관광동향분석'(2012.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승무원 제외수치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관광동향분석'(2012.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그림 Ⅱ-2] 2011년 외국 관광객 현황

- 여성역사 박물관으로 한류에 관심 많은 여성관광객 유치 확대
 - 외국 관광객의 성별을 보면, 20대 여성이 가장 많음. 전체적으로 외국 관광객들 가운데는 여성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24%로 가장 많고 30대가 21%, 40대가 20%, 50대가 17%를 차지함.
 - 이는 20~40대 여성들이 한류팬으로서 연예인을 만난다거나 한국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함.
 - 여성관광객의 주된 관광 형태: 화장품, 의류 등 쇼핑과 한국음식 체험이 주를 이룸. 화장품이나 의류, 음식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분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여성의 미와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줌.
 -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보면, 몇년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명동을 비롯해, 2위인 동대문시장과 인사동(5위), 이태원 등 주로 쇼핑을 위한 공간임. 문화유산으로는 '고궁'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6위를 차지함.

〈표 II-4〉 2011년 외국인 선호 관광지 순위(중복응답)

1위	명동 (55.3%)
2위	동대문시장 (45.8%)
3위	고궁 (31.8%)
4위	남산/N서울타워 (29.1%)
5위	인사동 (26.1%)
6위	박물관 (21.8%)
7위	롯데월드 (20.6%)

출처: 김향자(2012),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렇지만 앞서 여성 관광객의 주요 관심사가 쇼핑이나 음식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들 여성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성역사박물관이 있다면, 관광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한국의 전통문화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현상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역사와 생활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가령, 여성박물관에서 한방 화장품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의 체험을 접목한다면 박물관으로의 유입이 더 클 것.
- 한류의 주된 테마로서 여성문화콘텐츠에 주목하여, 여성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공간으로서 여성역사박물관이 필요함.
- 지금까지 공식적인 기록에서 세상의 절반, 인류역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역사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함. 그나마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여성인물이 발굴되고 새롭게 조명되곤 했음.
 -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소서노’의 존재가 알려졌고, [대장금]을 통해 왕과 왕비의 그늘에 가려진 ‘궁녀’와 ‘의녀’의 존재를 드러냈음. [황진이]에서는 기생의 뛰어난 예능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음.

Ⅱ.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왜 필요한가? ●●● 25

- 이렇듯 한류의 중심에는 여성이야기가 있었고, 아직도 발굴되어야 할 여성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함.

	<p>⇒</p>	<p>내) 가려진 역사 속 여성에 대한 관심 유발, 다양한 여성인물 찾기 시발점 외) 한국의 궁중요리와 의술에 관심유발</p>
	<p>⇒</p>	<p>내) 역사 속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 유발 외) 한국여성에 대한 관심 유발</p>
	<p>⇒</p>	<p>내) 기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 유발 외) 한복의 아름다움, 한국여성의 화장법</p>

자료설명: TV, 영화관용 드라마와 영화 홍보 포스트 및 화보

-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려면 일차적인 연구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함. 여성문화자원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
 - 안동 장씨의 음식디미방은 한식을 다룰 수 있으며, 이 사주당의 태교신기는 한국인의 태교와 육아, 이 빙허각의 규합총서는 18세기 한국여성들의 생활 상을 보여줌.
 - 여성문화자원의 발굴이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안동 장씨가 살았던 경북 영양군 두들마을에서는 음식디미방을 통해 한식요리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장금 덕분에 경북궁에서는 수라간이 있었던 소주방터에 관심이 많아져 복원이 앞당겨지기도 함. 또한 북촌에 있는 궁중 음식연구원도 궁중요리전문관이자 체험장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궁중요리를 배운 사람들이 곳곳에 한식당을 차리고 있음.
- 박물관 이용 현황에 비춰 본 새로운 콘텐츠로서 여성박물관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인원은 국내외인 모두 합쳐 300만명이 넘는데, 이는 세계 9위의 수준임. 그밖에 서울에 있는 국공립박물관의 경우 민속박물관이 236만명, 고궁박물관이 142만명, 서울역사박물관이 138만명 정도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3개 박물관은 규모면에서 서로 비슷한데, 왜 민속박물관의 관람객이 100만이나 더 많은가 하는 점.
 - 이는 경복궁과 가깝다는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민속박물관이 더 많은 관심과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로부터 여성박물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

〈표 Ⅱ-5〉 2011년 국공립박물관 이용현황

박물관명(국공립)	연관람 인원(명)
국립중앙박물관	3,239,549
국립민속박물관	2,355,956
국립고궁박물관	1,420,112
서울역사박물관	1,375,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현재 여성관련 박물관은 주로 사립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 수도 매우 적음. 김치, 화장, 자수, 한복, 떡 등은 한류의 주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사설로 운영되다보니 규모도 작고 홍보도 미흡하며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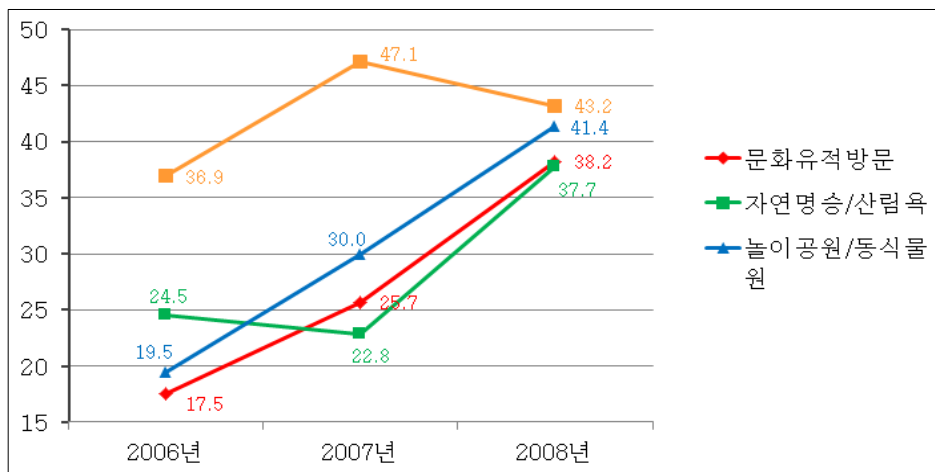
〈표 Ⅱ-6〉 여성관련 박물관 이용현황

박물관명(사립)	연관람 인원(명)
풀무원김치박물관	60,079
짚풀생활사박물관	17,307
초전섬유퀼트박물관	13,172
북촌생활사박물관	11,608
웅기민속박물관	9,563
떡박물관	7,091
코리아나화장박물관	5,393
한상수자수박물관	15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의식주 등의 생활사를 종합적으로 전시 관람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국립여성박물관의 건립에 의한 여성문화자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 및 다양화라는 관광정책적 측면에서의 특징점을 살릴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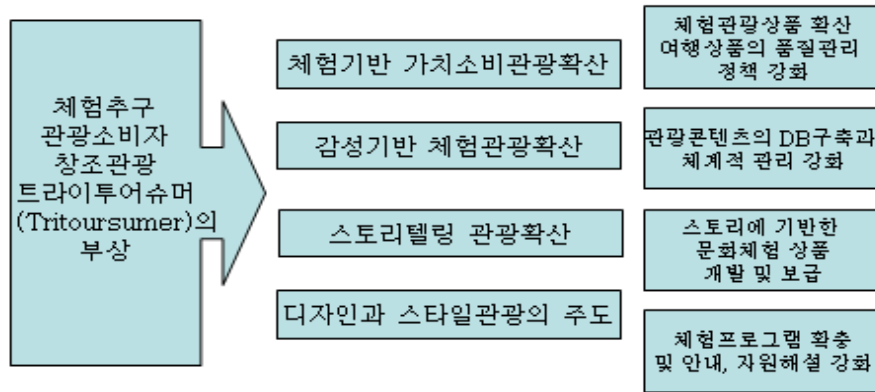
- ‘체험여행, 교육여행, 창조여행’ 등 변화하고 있는 국내 관광문화패턴에 주목할 때, 생활밀착도가 높은 여성사박물관은 전시와 체험이 결합된 운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여가시간이 증가,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음. 학교교육에서도 주5일 수업이 도입되고 창의체험학습이 강조되면서 고궁이나 박물관 답사 등 교육여행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여가백서」.

[그림 Ⅱ-3] 연도별 관광활동 추이

- [2008 여가백서]에 의하면 ‘문화유적방문’이 놀이공원 관광의 비율과 함께 급격히 높아지는 데 비해, 전통적인 방식의 소풍이나 야유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 2002년 5.8%에 지나지 않던 문화유적방문의 비율이 2008년 38.2%까지 높아져 놀이공원 41.4%와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 관광문화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최근에는 체험관광, 창조관광, 생태관광 등 개별화된 고품격 관광문화로 변화되고 있음.



출처: 심원섭(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관광연구원.

[그림 Ⅱ-4]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정책

- ‘돈 먹는’ 박물관이 아니라, ‘수익창출’이 가능한 박물관으로서 여성사박물관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
 - 국공립 박물관 운영은 현재 무료입장, 무료체험으로 막대한 국고를 소비하고 있음. 수백만에 이르는 관람객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지 차원에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하락, 관람의 무질서 등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2010 국립박물관연보]에 의하면 전국의 12개 국립박물관 1년 세출은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 1000억원 가까이 사용하면서 세입은 190억 수준임. 즉, 800억 가량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셈.
 - 박물관의 유지관리는 국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무료의 남발은 관람객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박물관의 이미지마저 나빠지게 할 뿐임.
 -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운영비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223억원이지만, 지방박물관은 13억 수준임. 인건비는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운영은 현실화시켜 자급자족 혹은 수익을 창출하는 박물관의 전형을 만들 필요가 있음.

〈표 II -7〉 2010년 국립박물관운영비 현황

박물관별 사업운영비 (인건비 제외)	2010년 세출(단위: 백만원)
국립박물관 사업운영비	44,107
- 국립중앙박물관	22,371
- 국립부여박물관	1,391
- 국립공주박물관	1,235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편(2010), 「국립박물관연보」, 국립중앙박물관

- 만성적자상태인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 운영 필요함.
 - 그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쓰는 비용보다 외국으로 나간 국내인들의 관광지출이 더 많아 관광수지는 항상 적자였음. 쇼핑과 숙박을 제외하고는 문화유적지,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 특별한 수익이 발생되지않음.
 - 이는 외인들이 돈을 아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돈쓸 데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광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임.
- 여성박물관은 관광객들이 아깝지않게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질 높은 유료 전시기획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임. 가령, 화장 전시와 함께 한방화장품 만들기, 김치 전시와 김치 담그기 행사, 한복 전시와 자수나 매듭 체험 등 전시와 체험을 결합하는 형태로 박물관을 운영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버는 박물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다. 여성역사박물관의 1+3 효과: ‘일자리 창출·양성평등의식 확산·한류 확대재생산’

- 여성문화관련 일자리 창출
 - 여성문화관광해설사
 - 현재 전국의 문화유적지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2,600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 80%가 여성임. 관광통역사나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 역시 대부분 여성. 2000년대 초반에 여성부가 선정한 향후 유망직종에 선정되기도 한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양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업 중 여성의 활약이 권장되는 분야임.

-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시작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은 이제 10년을 거듭하면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 여성가족부가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사학회, 여성문화관광해설사회 등 여성문화유산 유관기관과 연계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양성평등의식 확산의 장

- 여성과 관련된 의식주를 테마화하고 현대 한국여성의 특징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어머니상, ‘아줌마관’을 만들어 역사 속에서 강인하게 버텼던 한국여성들의 저력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삶과 역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 것임.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임.
- 해녀, 기생, 궁녀, 의녀, 무녀 등 역사 속에서 전문화된 여성의 직업을 재조명하고 여성의 일과 노동, 노동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여성의 일생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성인지’나 ‘양성평등’을 애써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장이 될 것임.
- 체험관광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눈으로 보고 끝나는 전시를 통해서 전달의 한계가 있음. 이를 좀 더 체험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공연이 전제된다면, 여성역사박물관은 훌륭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류 확대 재생산의 장

- “드라마가 한류 1.0세대, K팝이 2.0세대라면 3.0 세대는 전통을 현대화한 것”(이배용, ‘2012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¹⁾
- 그동안 한류 형성에 기여해온 여성문화유산 발굴의 전례(대장금, 소서노 등)에 주목한다면, 여성역사박물관이 향후 확대 재생산의 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한미수교 130주년 기념 국가브랜드컨벤션, 국가브랜드, 문화로 희망을 열다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주체. 2012.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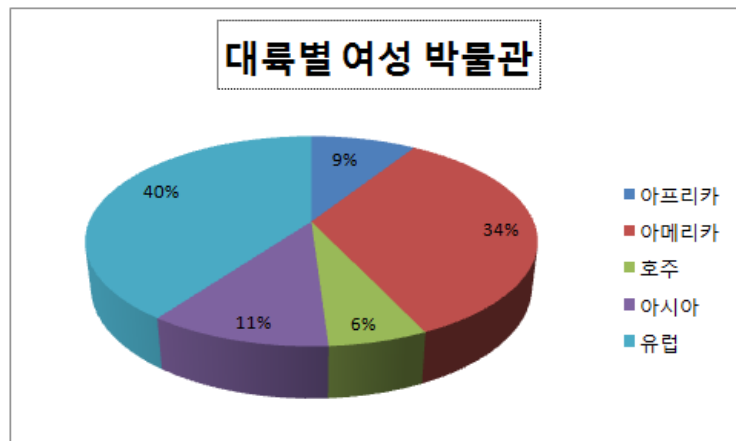
III

외국의 사례

1. 여성박물관 설치를 향한 세계적 추세 35
2.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
(women in museum) 38
3. 미국여성역사박물관(NWHM: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건립
추진 사례 43

1. 여성박물관 설치를 향한 세계적 추세

-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개의 여성 및 젠더 박물관들이 있고 14개의 여성 박물관이 건립 계획중임.
- 대체로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여성박물관 건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활발한 경향.
-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의 박물관 건립 노력은 다소 지체되어 있음.



출처: <http://www.womeninmuseum.net/blog/wp-content/uploads/2010/06/mdm-del-mundo-01-05-2010.pdf>(2012.09.29 검색)

[그림 Ⅲ-1] 대륙별 여성 박물관

- 이 가운데 중앙(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시 등 이른바 국·공립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다수(부표 1)이며, 특히 대륙별 주요 여성박물관은 다음과 같음.

구분	박물관 명	비고(설립연도,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National Pioneer Women's Hall of Fame	(1993, Alice Springs)
중국	Women Culture Museum	(2010, Beijing)
독일	Frauenmuseum, Bonn	(1981, Bonn)
코트디부아르	Musée des civilisations de Côte d'Ivoire	
덴마크	Kvindemuseet I Denmark	(1984, Domkirkeplads)
노르웨이	Kvinnemuseet	(1995, Rollighed)
미국	-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 The Women's Museum	(1987, Washington DC) (1987, Dalas)

- 오세아니아권의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여성개척자명예전당”
 - 엘리스 스프링스에 소재하며, 1993년에 설립되었음.
 - 여성개척자와 관련된 이야기, 사진, 예술작품 및 기념품 컬렉션 및 호주여성 역사와 관련있는 서고, 비디오, 오디오 자료를 콘텐츠로 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펀딩을 받고 있으나 점차 자립하고자 하고 있음.
- 아시아권의 중국 “국립여성과학아동박물관”
 - 베이징에 소재하며 최근인 2010년에 설립되었음.
 - 35,000평방미터(약 1만6백평)라는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며, 이름에 나타나듯이 역사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전시하고 있음.
- 유럽권의 독일 “여성박물관”
 - 본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1년에 3,000평방미터(약 9백평)규모로 건립된 세계 최초의 여성박물관.
 - 건물 건축은 시립으로 운영은 학회가 하고 있는 형태이며, 여성 예술가 육성, 여러 학회와 아카데미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북유럽 덴마크의 “kvindemuseet”
 - domkirkeplads 5에 소재하며, 1984년에 건립되어 1991년에 국립으로 국가 승인을 받았음.

- 2200m³(약 666평)규모로, 연간예산은 1천2백만 마르크 정도.
 - 덴마크 문화역사에서의 여성 삶과 일에 대한 지식 조사, 연구 및 수집품들을 주요 콘텐츠로 하고 있음.
 - 북유럽 노르웨이의 “국립kvindemuseet”
 - kongsvinger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5년에 건립되었음.
 - 300m³(약 90평)규모에, 연간 예산은 3천5백만 크로네(한화 6억7천만원) 정도.
 - 여성 역사전시, 청소년들에게 과거 여성역사 알려주는 내용, 무명여성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재평가, 문화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제공을 주요 콘텐츠로 하고 있음.
 - 북미권의 미국 “여성예술가박물관”
 - 워싱턴백악관 근처에 소재하며, 1987년에 건립되었음.
 - 78,810m³(23,881평)의 대규모로, 여성의 창조적 공헌 인정, 과거 및 현존의 잠재성 있는 여성예술가 육성 등 여성의 창조적인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고 있음.
 - 미국 달라스의 “여성박물관”
 - 1987년에 건립되었으며, 70,000m³(21,212평)의 대규모로,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계층의 미국 여성의 역사 전시를 주요 콘텐츠로 하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여성박물관이 주정부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이 여럿 있음에도, 2005년 이래 미국여성역사 박물관(NWHM;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건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노력을 펼쳐 옴.
- 여성 박물관들은 젠더에 대한 정보를 주고, 사람들을 교육하며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1차 세계여성박물관 회의(2008.6; 밀라노)에서의 ‘여성박물관 결의안’ (부표 2 참조) 내용에 포함된 여성박물관의 주요 역할

- 여성 박물관은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잘 조명해 주는 일을 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문화를 보존하고 생성하며, 선입견을 철폐하고, 여성 및 인권 존중에 기여함.
- 여성 박물관은 일종의 사회적 거울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women in museum)¹⁾

○ 네트워크 참여국가

- 총 32개국이 참여
- 미국은 13개로 최다 보유국이며, 3개 이상 보유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이며, 2개 이상 보유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이며 나머지 23개 국가는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여성사전시관도 현재 네트워크의 일원임.

〈표 Ⅲ-1〉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 참여 국가

	국가	박물관 이름	홈페이지
1	아르헨티나	Museo de la mujer argentina	www.museodelamujer.org.ar
2	오스트레일리아	National Pioneer Women's Hall of Fame	www.pioneerwomen.com.au
		Pioneer Women's Hut	www.pioneerwomenshut.com.au/
3	오스트리아	Frauenmuseum	www.frauenmuseum.com
		muSIeum	www.museum.at
		virtual museum	
4	벨기에	Gynaika	www.gynaika.be
5	캐나다	Women's Art Museum Society of Canada (WAM)	http://www.wamsoc.ca/
		Musée de la Femme	http://www.museedelafemme.qc.ca/

1) 이하 본문의 내용은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womeninmuseum.net/blog/>)dml 해당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국가	박물관 이름	홈페이지
6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Musée de la femme	afcd_rca@yahoo.fr
7	칠레	Museo e Instituto de la Mujer Mercedes Valdivieso	http://pont_des_arts.blogspot.kr/2006/08/prese ntacion-del-museo-de-la-mujer.html
8	중국	Women Culture Museum	www.snnu.edu.cn
9	코트디부아르	Musée des civilisations de Côte d'Ivoire	http://www.africultures.com/php/index.php?nav=article&no=3091
10	덴마크	Kvindemuseet I Denmark	www.kvindemuseet.dk
11	프랑스	Musea	www.musea.fr
		virtual museum	
		Musée de la femme Rhône-Alpes - HAUTE SAVOIE - Faucigny	www.museedelafemme.fr.st
12	감비아	Women's Museum and Art Centre	bernd.ax@web.de
		Mrs. Isha Fofana	
13	독일	Frauenmuseum, Bonn	www.frauenmuseum.de
		frauen museum wiesbaden	http://www.frauenmuseum-wiesbaden.de
		Museum Frauenkultur Regional International, Fürth-Burgfarnbach	www.frauenindereinenwelt.de/museum.html
		Das Verborgene Museum	www.dasverborgennemuseum.de
14	인도	Shashwati Women's Museum	www.kamat.com/kalranga/women/shashwati/
15	이스라엘	Women's Museum, Haifa	http://www.homepro.co.il/pc/HomePage.asp?id=298
16	이탈리아	Frauenmuseum/Museo delle Donne	www.museia.it
		Museo delle donne valdesi	http://www.fondazionevaldese.org/it/museo/museo005.php
17	일본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	www.wam-peace.org
18	한국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http://eherstory.mogef.go.kr
19	말리	Muso Kunda (Musée de la Femme)	www.museedelafemme.com
20	멕시코	Women's Museum of Mexico, Women's Museum initiative	http://www.museodelamujer.org.mx/
21	네덜란드	FemArtMuseum	www.femartmuseum.com
		Het vrouwenhuis	www.vrouwenhuis zwolle.nl/welkom/
		Museum van de Vrouw	www.museumvande vrouw.nl

40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국가	박물관 이름	홈페이지
22	노르웨이	Kvinnemuseet	www.kvinnemuseet.no
23	페루	Museo Memoria de la Mujer Peruana	http://www.caretas.com.pe/1367/culturales/culturales.html
24	폴란드	Feminoteka	http://www.feminoteka.pl/muzeum/
		Women's History Museum	
		virtual museum	
25	루마니아	Dragomiresti - The Museum of the Romanian Peasant Woman in Maramures	http://visittransilvania.ro/detail_attraction.php?language=english&district=Maramures&id=215
26	세네갈	Musée de la Femme sénégalaise "Henriette Bathily"	www.mufem.org
27	스페인	Museo de la mujer gitana	www.mujeresromi.org
28	수단	Sudanese Women's Museum Dr. Nafisa A Alamin	www.ahfad.org
29	스웨덴	Museum Anna Nordlander	http://man.skelleftea.org/
30	우크라이나	Museum of women's history, history of women's and gender	http://gender.at.ua
31	미국	Connecticut Women's Hall of Fame	www.cwhf.org
		Susan B. Anthony Museum & House	www.susanbanthonyhouse.org
		The Museum of Women: the Leadership Center	www.museumofwomen.org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www.greatwomen.org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www.nwhm.org
		The Women's museum®	www.nmwa.org
		Sewall-Belmont House & Museum	www.sewallbelmont.org
		Susan B Anthony - American pioneer leader of US Women's Suffrage	www.susanbanthonyhouse.org
		Alabama Women's Hall of Fame	www.judson.edu/extra/fame/fame.html
		Women's History Museum - on wheels	www.geocities.com/womenshist/womenshist.html
		The Women's Museum: an Institute for the Future	www.thewomensmuseum.org
		Women's History Reclamation Project	www.whmec.org
		International Museum of Women	www.imow.org
		virtual museum	

	국가	박물관 이름	홈페이지
32	베트남	The South Vietnam Women's Museum	http://www.baotangphunu.org.vn/vi
		Vietnam Women Museum	http://www.thingsasian.com/stories-photos/1106

출처: http://www.womeninmuseum.net/blog/?page_id=5902 (2012.10.07.)

○ 주요 활동

- 제1차 여성 박물관 국제회의

주체	Women's Museum of Merano, Women's Museum "Henriette Bathily"
일시	2008. 06.11 ~ 2008.06.13
장소	Merano 시

- 40여개의 세계 여성 박물관 대표자 중 23명 참석, 전체 5대륙 100명의 참가자 참석
- Shirin Ebadi(2003년 이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개회 연설로 시작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여성들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여성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
- 국경과 대륙 넘어선 네트워크 이어갈 것을 다짐.
- Astrid Schönweger 와 Heidi Hintner의 지휘로, 싱글 여성 박물관에 관한 소개와 싱글 여성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
- 2008년 6월 13일 최종결의안 통과로 국제회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줌.
- 향후 여성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여성 박물관이 관심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함.

- 제2차 여성 박물관 국제회의

주체	Women's Museum Bonn
일시	2009. 09. 09 ~ 2009. 09.12
장소	Bonn, Frauenmuseum

- 각 대륙 대표자로 결성된 첫 번째 국제조정위원회 설립

〈표 III-2〉 세계여성박물관네트워크 국제조정위원회 대표자 명단

대륙	국가	대표자	박물관	지역
아프리카	수단	Omima Mustafa	Sudanese Women's Museum	Omdurman
	세네갈	Maria Diatta	Musée de la Femme	Gorée Island
아시아	한국	Ki Young-in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Seoul
호주	호주	Helen Jaraslafsky	National Pioneer Women's Hall of Fame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Graciela Tejero Coni	Museo de la Mujer	Buenos Aires
유럽	이탈리아	Astrid	Schönweger, Women's Museum	Merano
	독일	Bettina Bab	Women's Museum	Bonn

출처: <http://www.womeninmuseum.net/blog/?m=200909> (2012.10.11.)

- 위원회에서는 전 세계 여성 박물관 결성에 관한 법령을 준비
- Idols - Role models - Heroines라는 이름으로 여성 박물관 관련 전시회 개최 예정

- 제3차 여성 박물관 국제회의

주체	Buenos Aires part of the II International Feminist Congress
일시	2010. 04. 24~2010. 05.25
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 5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멤버십/새로운 네트워크 위원회 결성/새로운 네트워크 멤버 수용/2008년 결의안 문구 수정 제안/2012년 네트워크 회의 장소 결정
- 5가지 토픽 외 결정사항: 코스타리카 국립대학 석사과정의 요구에 따라 여성 박물관 창시를 청원함/독일 여성 박물관 건립을 위해 독일 당국에 자금 요청을 지원함/여성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활동에 공

현할 것을 공표함

- 제4차 여성 박물관 국제회의

주체	Fourth International Congress of Women's Museums, Alice Springs/Australia
일시	2012. 05. 18~2012. 05.21
장소	Alice Springs Australia

- 국제 여성 박물관 네트워크 공람: ‘Muslim Women’s Art & Voices’ 제목으로 박물관 관련 프레젠테이션
- 이탈리아 여성 박물관에서 제작한 이란 여성과의 인터뷰 필름 상영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에 여성 박물관을 한 섹터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함. 이를 위해 6대륙 6멤버로 구성된 이사회 결성(독일 여성 박물관장인 Bettina Bab이 이사회 장으로 추대)
- 2014년 국제회의 장소를 중국 시안(Xian)으로 결정

3. 미국여성역사박물관(NWHM: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건립 추진 사례²⁾

가. 건립 추진 현황

- 미국의 국립박물관이 모여있는 워싱턴 내셔널 몰에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속에 여성의 독특한 역사를 통합하려는 구상 하에 현재 교육활동과 건립추진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워싱턴 내셔널 몰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하는 취지: 미국의 수도인 워

2) 이하 본문의 내용은 NWHM의 홈페이지(<http://www.nwhm.org/>)에서 해당내용을 번역·정리한 것과 NWHM벤치마킹을 위한 연구자(이춘아)의 관계자 면담결과를 종합한 것임.

싱턴에, 국립박물관 밀집지역인 내셔널 몰에 여성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 내셔널 몰에는 워싱턴, 버지니아 인근 지역뿐 아니라 미국전역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차 들리는 곳이고 세계 각국 관광지이기도 함.
- 이곳에서 여성역사박물관은 미국의 발전과정에서 기여한 여성들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존재를 부상시키고자 함.
- 또한 내셔널 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관람객 수가 급격히 낮은 편이어서 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함. 관람객이 적으면 후원금도 상대적으로 낮아짐.

- 미국여성역사박물관위원회법(NWHM Comission Legislation)과 5년간 모금하여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2~3년간 건축을 예정하고 있음. 법안 통과와 건축을 위한 모금이 가장 큰 과제임. 리모델링 또는 신축 관련 모금을 자체적으로 해야 함. 건축설계와 디자인은 여성건축가로 한다는 방침은 세우고 있으나 모금규모에 따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함.

나. 건립을 위한 법안 발의 경위

- 법안 발의 과정
 - 박물관은 지난 16년 동안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 박물관을 짓기 위해 노력해 옴.
 - 미연방건물이나, 사유지 등 43개 부지를 점검해오다가 2000년도에 구 우체국 별관을 장기임대하려는 법안을 제출함.
 - 2003년 미국 상원의원들은 내무부(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가 박물관에 임대해주기로 하는 법안(S. 174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에 법안을 제시함(referr).
 - 2005년 7월29일, 상원은 미국여성역사박물관법(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에 전원합의로 통과시킴.
 - 상원의원 Susan Collins는 여성상원의원들을 포함하여 20명의 상원 의원을 모아 법안을 소개함.

- 그 법안은 하원의 교통시설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2006년 국회시기 종료되어 제정되지 못함.
- 하원에서도 여성의원 Deborah Pryce의 지도력으로 하원 동반입법 (HR 1429)이 제시되었음.
- 2007년 11월1일, 스미소니언 재단이 내셔널 몰 옆에 있는 예술산업건물을 제안했으나, 2008년 5월5일 철회함.
- 2008년 박물관은 내셔널 몰 부근 새로운 부지를 확인함. 2008년 7월17일 여성하원의원 Carolyn Maloney가 하원법안(HR 6548)을 제안하고, 상원에서는 Susan Collins가 동반법안인 S.3528을 제안함.
- 2009년 3월25일 하원입법 HR 1700이 재청되고, 하원에서 구두투표 (voice vote)로 통과됨.
- 2009년 10월29일, Collins 상원의원이 S.2129를 다시 제안하고, 2010년 4월21일 상원의 환경공공노동위원회(Enviro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에서 HR 1700과 S.2129가 구두투표로 통과됨
- 2011년 3월30일, 하원의원 Maloney와 상원의원 Collins가 미국여성역사박물관법(HR 1269와 S.680)을 다시 제안함.
- HR 1269는 22명의 의원들과 제안되었고, S 680은 19명과 제안되었음.
- 2011년 4월14일 S680이 상원의 환경공공노동위원회에서 구두투표로 통과됨.
- 2011년 9월18일, John Mica 하원의원이 제출한 미국여성역사박물관과 연방시설공고화와 효율성 법안(HR2844)이 교통사회기반시설위원회를 통과함.
- 2012년 9월14일, Collins상원의원이(S.3567), Meloney, Norton하원의원이(HR 6412) 양당법안으로 미국여성역사박물관위원회법안(NWHM Commission Legislation)을 제출함.
- 이 법안은 기존의 부지 확정같은 세부적인 법안이 아니라 부지확정 등 건립과 관련한 사항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법안임.
- 이 법안은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이 차용했던 법안이기도 함.
- 2012년 12월 현재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아 이 법안도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이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임.

〈표 Ⅲ-3〉 관련 법안 제출하기까지 활동 및 사건 연표

년	월일	사 건
2004	6.15	NWHM이 전미 연합 기관(national coalition) 설립 - 참가기관: 31개의 서비스, 전문가, 교육기관 참가 - 인원규모: 8천5백만명 -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위원회(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하원 의원들이 NWHM 법안(S.501)을 신속하게 인준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 발송.
2005	7.18	콜린스(Collins)상원의원 S.501법안을 국토안보정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제출 - S.501의 내용: · 워싱턴D.C에 NWHM 부지 제공요청(100,000 평방피트) · 박물관 리모델링 소요비용은 박물관측에서 지불하도록 함 (요청한 부지의 성격 및 위상: 워싱턴 DC 북서부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대로의 구 우체국별관(Old Post Office annex)으로 연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소유이며, 현재 비어있는 상태임
	7.29	상원의원 만장일치로 S.501 통과시킴
2006	3.03	하원의원들이 S.501 통과시키도록 촉구활동 전개 · 전미 연합기관의 도움으로 전국가적 편지쓰기 캠페인 · Press Conference에 배우 메릴 스트립을 활용한 비디오 청원
	3.19	NFWL의 국가교육정책위원회(National Policy Committee on Education)에서 NWHM의 노력을 지원해 것을 요청
	5.22	연방조달청장의 S.501 지원 발언 ·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첫 번째 여성청장이자 새로운 청장인 Lurita Doan은 상원의 국토안보 정무위원회(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 Affairs Committee)의 인사청문회장에서 NWHM 건립을 지원하는 상원의원 Susan Collins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언급
2007	7.20	S. 1841 법안을 국토안보 정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제출 (법안제출에 서명한 의원: 상원의원 Collins, Mr. AKAKA, Mr. BENNETT, Mrs. BOXER, Ms. CANTWELL, Mrs. CLINTON, Mr. COLEMAN, Mr. DURBIN, Mrs. DOLE, Ms. KLOBUCHAR, Ms. LANDRIEU, Mrs. LINCOLN, Mrs. MCCASKILL, Ms. MIKULSKI, Ms. MURKOWSKI, Mrs. MURRAY, Ms. SNOWE, Ms. STABENOW, Mr. VOINOVIC 등) - 법안 주요내용: 여성의 역사를 기념하려는 노력들은 미국과 여성 역사에 있어서 focal point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직업 창출, 관광객 수요 신장은 결국 워싱턴 DC 세입 증대를 가져다 줄 것임
	07.17	H.R. 6548 법안이 교통 및 사회기반 시설 위원회(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에서 하원의원에 의해 제청 - 내용: 연방조달청에서 워싱턴 DC 부동산 구역을 박물관에 양도할 것을 허가하는 법안

년	월일	사 건
	04.10	African American 박물관 건립과정을 조사 - NWHM 건립시 활용할 예정 - African American 박물관 건립과정을 주시하고 있음
	04.16	African American 박물관 건축 디자인 형태 공식 발표
	09.24	Carolyn Maloney(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 H.R. 1700(NWHM을 워싱턴 DC 물에 건립하고자 하는 법안)의 위원회통과를 자축 - 이 법안은 구두투표(voice-vote)형태로 교통 및 사회기반 시설 위원회(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를 통과 - 주요 내용: 연방 조달청에서 12층에 있는 Cotton Annex 부지를 박물관에 타당한 가격으로 팔 것을 명시 Susan Collins(상원의원)은 상원에 동일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 중
	0.14	HR 1700 법안이 위원회 통과를 거쳐 하원도 통과했음 박물관장은 Carolyn Maloney(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의 이 법안 통과에 들인 지대한 공헌을 치하
	10.29	S.2129-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제출(상원의원 Susan Collins가 제출, 동 법안 제출에 19명의 상원의원 동참) 최근 하원을 통과한 H.R. 1700과 성격을 같이 하는 동일 법안임. 환경과 공공 토목 상원 위원회(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의장은 Boxer 상원의원)에 회부될 예정이며 2010년이 가기전에 법안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2011	9. 18	John Mica(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 HR 2844-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nd Federal Facilities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11-가 교통 및 사회기반 시설 위원회(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를 통과하여 하원으로 회부됨 - 법안내용: NWHM 부지를 위해 내셔널 몰과 근접해 있는 12번가와 이스티클랄 거리 매입을 허락하는 법안으로 기존 법안을 수정한 것임
2012	09.14	Collins(상원의원)와 Maloney 및 Norton(하원의원)은 NWHM 건립을 위해 연방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양당 법안을 제출 - 이 법안 제출에 포함된 상원의원 (Barbara Mikulski (D-MD), and Senators Kay Bailey Hutchison (R-TX), Joe Lieberman (I/D-CT), Jeanne Shaheen (D-NH), Patty Murray (D-WA), Mary Landrieu (D-LA), Daniel Akaka (D-HI), Jeff Merkley (D-OR), Amy Klobuchar (D-MN), Lisa Murkowski (R-AK) 등) 박물관 건립 관련하여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위원회 설립 관련이라 기존의 법안과는 성격이 다름 특히 납세자들로부터 편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에서 자금을 충당해야 되는 법안임

○ 법안 통과에의 애로사항

-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의 대립이 여성역사박물관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보수진영에서 여성문제는 진보진영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 무조건적인 반대도 하게 됨.
- 오바마 정부초기에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하게 밀어붙여 여성역사박물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하는데 건강보험문제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대립하게 되면서 여성역사박물관 법안도 무조건 반대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성계의 인식임(미국여성단체협의회장 수잔 스칸란 회장).
- 두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가장 강하게 반대함. 미국 전역에 1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반대함.
- 그러나 100여개가 있지도 않을 뿐 더러, 하우스형태의 박물관들을 포함한 숫자임. 가령, 현충원내에 여성군인박물관이 있는데 그러한 박물관도 포함된 것임.
- 달라스의 여성박물관도 2011년에 문을 닫았고, 현재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역사박물관은 없음.

○ 가장 최근에 발의한 미국여성역사박물관위원회법안(2012년)의 주요 내용

- 상, 하원 법안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내용은 동일함.
 - 상원: S. 3567 (2012.9.19) 미국여성역사박물관위원회법안
 - 하원: H.R.6412 (2012.9.14) 미국여성역사박물관위원회법안
- 개관 가능성이 있는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회는 Washington, D.C.에 미국여성박물관의 건립과 유지를 위한 법안 계획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8명 위원으로 구성됨. 다수당 상원 리더, 하원 의장, 소수당 상원 리더, 소수당 하원 리더가 각각 두 명씩 위원을 임명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하는 일: (1) 박물관의 부지를 포함하는 쟁점들과 박물관이 스미소니언 재단의 한 파트로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 보고하기 (2) 공공기부를 통해 박물관의 설립과 유지를 위한 모금계획 개발하기

- 위원회에 실행 관장과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위원회는 법안에 따른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종결하도록 함.
- 이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기금을 강요하는 것을 금함.

다. 건립을 위한 여성계 연대

- 미국 여성참정권 운동 기념 조각상 이전운동을 계기로 박물관 건립 추진에 나서게 됨.
 - 미국 여성참정권운동을 했던 여성들을 기리는 조각상(1919~20년 사이에 Adelaide Johson이라는 여성조각가가 만들었음)이 국회의사당 지하에 있었음.
 - 이 조각상을 국회의사당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20여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의지도 생겼고, 현재의 Joan Wages 회장도 동참하게 되면서 1997년 박물관 건립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함.
 - 이는 여성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상원과 하원의 여성의원들을 독려하여 박물관 부지마련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
 -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각종 행사 홍보, 편지보내기, 모금행사 등 프로젝트별로 도와주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대변인을 찾다가 세계적인 여배우 메릴 스트립에게 편지를 보내어 홍보대사로 유치하게 됨. 스트립은 큰 후원금을 낼 뿐 아니라, 다른 여배우들도 동참하도록 함. 이들은 이벤트 모금, TV 광고, 방송국 행사 등에 참여하며, 영부인과 그 딸들에게도 연락하여 박물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주었음.
- 현재 미국도 남녀분리된 여성운동에 예민해져 있어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이 남성과 여성을 파트너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음. 현재로는 여성의 존재가치를 물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교육효과가 여성역사박물관의 주요 기능이라 보고 있음.

- 여성운동의 결과로 법대에 여성들이 51%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여성법률가들이 늘어났고, 여성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에 여성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있어,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여성계가 공감하고 있음.
- 그동안 진척되어온 박물관 관련 법안이 폐기되긴 했지만,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여성들(국회의원, 박물관 회원, 여성단체)의 조직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게 되었음.

○ 미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역사박물관 지원활동

- 미국여성단체협의회에 240여 회원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활동 목표에 박물관 법안통과 지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전화만 하면 도와주고 견기대회라도 열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의향을 갖고 있음. 전화해 주기, 편지하기, 회원단체에 홍보하기 등에 협조하고 있음.
- 협의회의 스칸란(Susan Scanran)³⁾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면서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박물관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음.
 -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활동은 여성단체가, 모금활동은 박물관에서 하는 역할분담으로 협력 체제를 갖고 있음.
 - 또한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있음
- 협의회를 대표하는 10명의 회원이 백악관에 초청되어 미셸 오바마 영부인을 만났을 때도 10명이 한 목소리를 내어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을 만드는 데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영부인의 지지를 얻어냄.
- 국회의사당 옆 상원의원회관 주차장 부지에 여성참정권 운동을 벌였

3) chair of NCWO(National Council of Women Organization & President of Women Research & Education Institute)

던 분이 살았던 집이 있음(Sewall Belmont). 그곳이 박물관 형태로 되어 있음. 그곳을 의원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했을 때, 여성단체에서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그당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협력하여 그곳을 국보로 지정하였음. 이곳에서 평소 모임도 하고 결혼식도 하기도 하는데, 올해 처음 여성상원의원 20명이 모이기도 하였음.

- 앞으로도 박물관 건립을 위해 여성단체들은 240개 회원단체들과 연합하여 편지도 보내고 항의집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 예정임. change.org에서 240개 회원단체들이 사인하여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음. 여성단체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여성역사박물관은 조안 웨지 회장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임.

○ 여성운동 차원에서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당위성

- 스칸란 미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할머니 대에서부터 워싱턴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내셔널 몰(mall)을 자주 방문했지만, 링컨의 모자나 워싱턴의 틀니 등 남성 유물은 보았지만 여성의 것을 보지 못함. 즉, 여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은 없었음.
- 여학생들이 박물관 수학여행을 다니면서 ‘여성들은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어 왔을 것임.
-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을 알고는 있지만, 이들의 존재를 직접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함.
- 여성역사박물관은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해왔던 것을 알릴 수 있음.같은 콘텐츠이지만 이왕이면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강조하여야 할 것임. 여성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현재는 그리고 미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임.
- 박물관의 최고 목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능일 것임. 예컨대 여성법률가들이 여성운동의 덕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잘난 것으로 만족하며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함. 여성역사박물관에 여성운동의 역사를 담아 교육을 할 필요 있음.

- 여성역사박물관 건립과 여성운동은 같은 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보여주는 각종의 활동과 국회 로비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식의 확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여성의식 교육을 박물관을 통해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법안 통과와 모금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

라. 현재 활동 현황

○ 조직과 구성

- 1996년 스테이서(Karen K. Staser)가 비영리단체로 박물관을 창립하였고, 창립멤버이자 현재 회장인 Joan B. Wages가 2007년 7월 박물관 회장으로 당선됨.
 - 박물관은 현재 시설이 없으므로 관장(director)이라는 직함보다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치적 로비와 모금을 주로 해야 하므로 President & CEO 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며 인가 로비스트⁴⁾이기도 함.
- 현재 직원은 7명이지만 백여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이들 봉사자들은 많은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 웹사이트도 전문업체들이 도와주고, 웹마스트는 한명이지만, 봉사자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명예이사회는 의회와 전현직 내각 관료들 200여명으로 구성되어있음.
- 협력조직으로 여성서비스 및 전문직 여성단체 45개가 있으며, 이들의 회원은 8백5십만명에 이름
- 전국연구자협의회와 연구자문위원회는 박물관과 학문영역간의 관계

-
- 4) · 정부 관련된 일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인 Cash, Smith & Wages의 회장
 · 인가 로비스트(Registered Lobbyist)
 · 국회 의사당에 여성 관련 이슈로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통과
 · 항공기 금연 법 및 기업 매수자들의 기업 세습을 방지하는 델라웨어 법령 통과에 족적을 남김
 · 각종 강연 참여 및 국립출판사에 관한 책 저술
 · Suffrage Statute를 국회의사당 Cryptol에서 현재의 로톤다로 옮기는 법률 통과에 기여
 · 10여년 넘게 박물관 부지 마련을 위해 국회에 로비를 지속해 왔음.

를 구축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음. 파트너십과 상호교류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박물관 프로그램과 수집을 위한 자원을 확인해주며,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을 지도해주며, 박물관활동의 학문공동체로서 인식을 일깨워주며, 학문공동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박물관을 자문해줌.

- 전국연구자협의회(National Scholars Council)는 Teresa Murphy 박사(조지워싱턴대학교), Jennifer Thigpen 박사(워싱턴주립대학교), Juliana Barr 박사(플로리다대학교), Marjorie Spruill 박사(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등 8명
- 연구자자문위원회(Scholars Advisory Committee)는 Bonnie Morris(조지워싱턴대학)을 비롯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위원은 다음을 리뷰해주고 코멘트해줌: 박물관의 해설 프로그램, 박물관의 온라인 전시, 박물관의 공공 프로그램, 그리고 정기적으로 박물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리뷰해줌.
- 대변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메릴 스트립(Meryl Streep)이 2011년에 회원가입하여 대변인이 되면서 박물관 회원수가 5만명으로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고, 매달 회원이 늘어나고 있음.
- 메릴스트립은 할머니가 투표권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가정사를 기억하며, 박물관 건립활동에 참여했다고 하며, 5년간 1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박물관에 기부하기로 약속함.
- 또한 지나 데이비스 등 다른 동료 배우들이 박물관 건립과정에 참여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함.

○ 위치⁵⁾

- 현재 사무실은 워싱턴 중심가에서 15km 떨어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사무실을 갖고 있음(주소: 205 S.Whiting Street Suite 254, Alexandria, VA 22304, 전화번호: 703-461-1920 웹사이트: www.nwhm.org).
-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곽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5) NWHM은 아직 건립 전이라,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고 있으나, 건립추진을 위한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음.

○ 교육 및 전시, 홍보

- 박물관 건립추진과 함께 일반인과 회원들에게 교육 행사를 제공하게 됨. 또한 박물관은 온라인상의 여성역사교육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음.
 - 20개의 온라인 전시를 했고, 관련 강의일정도 있었음. 이러한 것들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박물관 무료 웹사이트임. 4만5천 교육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박물관 웹사이트를 참조하고 있으며, 2011년도만 해도 웹사이트에 1백30만 번의 조회가 있었음.
- 박물관 건립 후 그곳을 채울 전시물에 대한 계획은, 스미소니언에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있어 그것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함.
 - 기증예정자도 많으나 현재 수장고가 없어 보류 중에 있음. 예컨대 최초 여성조종사가 몰던 비행기도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음. 필요시 협찬하면 되므로 전시물 걱정은 없다고 함.
- 진행중인 웹상의 기획전은 앞으로도 영구히 계속될 것인데, 상설전과 기획전을 하게 될 것이며, 기획전은 현재 웹상에 올라가 있는 기획전 가운데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임.
- 박물관 뉴스레터 발간. 계간지로 발간되는 “또 다른 관점”(『A Different Point of View』)은 1만7천여 박물관회원과 후원자들에게 배달되고 있음.
 - 뉴스레터는 박물관이 주관했던 교육프로그램과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여성역사와 유명한 미국여성에 관한 주제와 이야기를 담고 있음.
 - 박물관의 진척과정도 알려주고 있음.
- 그밖에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특히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었던 여성박물관이 2011년 폐쇄되었는데, 건물부터 사들여 리모델링하였으나, 달라스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잘못된 냉난방 시설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함.
 - 따라서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은 입지조건과 건축설계, 소프트웨어로

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 기타 최근 주요 활동(2011-2012년)

-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마련을 위한 법안이 지난 2006년부터 6여년 동안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연합(안)으로 제출되어 3번에 걸쳐 제출되는 우려곡절을 겪어 왔음.
- 현재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합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까지 왔으나, 2명의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임
- 법안통과를 위해 하원의장의 지지발언을 받아내어 발표, 기사화 하는 등 법안통과가 되기까지 정계, 학계인사를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관련법 안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향모색을 해나가고 있으며, 제출된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당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할 조치들을 강구하여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박물관건립추진위는 장기적인 추진운동이 가능하도록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박물관장 취임축하파티, 여성 참정권 획득 기념행사, 갈라쇼 등 법안통과에 영향력을 가진 중요 핵심인사들의 지지발언을 끌어내어 기사화하는 노력뿐 아니라 대규모 행사 개최시 건축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
- 여성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모금을 위해 건립 필요성을 유명배우를 홍보대사로 하여 여성계, 정계, 학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슈화하고 있으며, 행사마다 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표 III-4〉 NWHM 건립 추진을 위한 최근(2011) 주요 활동

연	월	활동 내용
2011	1	박물관장 취임축하 기념파티 개최 - NWHM 자문회원들과 Houston Native의 Carey C. Shuart가 박물관장 Joan Wages를 위한 기념 파티
	2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를 나라 전역에 구성 - 목적: 자금 조달

연	월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여성들에 관한 역사적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자, 큐레이터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됨.
	3	<p>두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워싱턴에 NWHM 건립관련 법안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하원에서 박물관 건립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회기동안 상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해 버렸음. - 메인(Maine)주 Susan Collins 상원의원과 뉴욕 주 Carolyn Maloney하원의원이 건립 관련 법안 다시 제출할 것을 발표함. - 법안 주요골자: 내셔널 몰에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Smithsonian Institution 근처에 위치한 Independence Avenue와 12번가에 있는 연방 부지를 당국에서 구입해 줄 것
	4	<p>두 명의 상원의원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건립 부지 관련 법안이 지난 6년간 세 번 시도되었음 - 새로운 법안 제출은 뉴욕 주 Carolyn Maloney상원의원과 Susan Collins상원의원이 지원해 주었음.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Jim DeMint상원의원과 오클라호마 주의 Tom Coburn상원의원의 반대로 통과 지연 - 박물관장(Joan Wages)은 웰즐리 여대 동문회에서 NWHM 건립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 - 하원의원 Carolyn B. Maloney와 Judy Biggert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여성 역사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자금은 개인 기부자들이나 기업, 재단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임. 미국 상원의원 Susan Collins도 상원에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함. 박물관 이사회와 지원자와 연합 멤버들은 모두 기자회견에 모여 법안 제출에 관한 뜻을 모았음. <p>상원의원 Susan Collins의 박물관 관련 법안이 환경 공공사업 위원회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를 만장일치로 통과.</p> <p>박물관 건립 관련 법안은 하원통과하고 상원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도 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박물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NWHM의 대변인이 되었음. <p>NWHM은 New Brunswick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갈라 파티를 열고 박물관 건립의 중요성과 의미를 역설하였음. 이 파티를 통해 23천 달러의 자금이 조성되었음. NWHM은 노력할 것임.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인 H.R. 1269와 S. 680이 통과되면 박물관 부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임.</p> <p>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Jim DeMint와 Tom Coburn이 여성 박물관이 필요 없다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음. Tom Coburn에 따르면 이미 여러 주에 여성의 역사를 기념하는 1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p> <p>하원의장인 Debbie Philips는 Marietta Times 5월 20일 신문 기고에서, 5월은 Mother's Day로 우리의 선조 여성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박물관 부지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실었음. 역사 교과서에 여성 리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등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Huffington Post지 NWHM 관련 기고자인 Andrea Stone이 그녀의 기사에 썼듯이, NWHM은 모든 프로그램이 학자들에 의해 검증을 받을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올릴 모든 내용들도 역사학자들의 검증을 받을 것임. 이 외에 업적을 쌓은 여성들의 전</p>

연	월	활동 내용
		기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박물관 웹 사이트에 올릴 것을 바라고 있음.
	8	여성 평등의 날(Women's Equality Day)로 여성 참정권 획득을 기념하고 있음. 여성 참정권 수정안은 1878년 1월 10일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고 수백 번의 제출 과정을 반복하여 1919년 6월 마침내 상,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음. 여성 박물관 첫 번째 정기 갈라 이벤트가 될 The de Pizan Honors를 2011년 11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임. 메릴 스트립 및 기타 연예계 사람들이 주관하여 모든 과정들은 박물관 오픈운동을 지원하게 될 것임
	9	박물관 부지 관련 법안- HR 2844가 교통 및 사회기반 시설 위원회(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를 통과하였고 다음에는 House Floor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셔널 몰에 인접해 있는 12번가와 Independence Avenue의 부지 구매를 허용해주는 법안임.
	11	NWHM 와 United States Studies of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서는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U.S. Women's History' 라는 제목의 강연을 개최함.

마. NWHM 건립 추진에 영향을 준 기타 박물관들의 현황

○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

- 건립 경위 및 현황

- 2003년: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 건립은 2003년 국회 법으로 통과되었으며,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로 설치됨.
- 2005년: 건립관장으로 Lonnie Bunch가 선정됨
- 2006년: 스미소니언 이사회는 2006년 1월 워싱턴 기념탑과 미국역사박물관 사이에 있는 5에이커의 부지에 박물관을 짓기로 투표로 결정함.
- 2009년: Freelon Adjaye Bond/SmithGroup이 건축팀으로 선정됨
- 흑인박물관도 여성역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건립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음. 내셔널 몰을 더 이상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환경론자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흑인이 주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건립이 지체되었다고 함.
- 흑인과 여성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법안인 1902년 맥밀란법이 우연히 발견되어 그것에 근거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여성역

사박물관 역시 이 법안을 근거로 내셔널몰 내 건립을 추진하게 됨.

- 2012년~2015년 건축: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창립된지 20여년만인 2012년 2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5년 준공식을 가질 예정임.
- 위치 및 건축, 건립재정
 - 현재 공사 중인 부지는 미국역사박물관과 기념탑(모뉴먼트) 바로 옆이며,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으로 등록됨.
 - ※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의 경우는 스미소니언과 유물 공유와 협찬은 원칙으로 하되 산하 박물관으로 들어가길 원치 않음.
 - 흑인박물관 역시 내셔널 몰에 건립하고자 하였던 이유로 모금도 쉽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위치를 강조함. 특히 공간의 가치를 중시함.
 - 박물관은 330,000 sq.ft.에 5층 건물로 건축 중임.
 - 박물관의 특징은 환경을 고려한 녹색 박물관(Green Museum)으로 최신의 기술을 도입한 냉난방 설계임. 주변경관을 고려하였고 디자인, 색, 형태를 아프리카 이미지로 함. 또한 흑인과 미국의 결합 이미지도 하며, 전통적 박물관 형태인 돔과 요새형이 아닌 아프리카의 이미지인 열린 공간을 혼합하여 조합하였다고 함. 21세기 박물관으로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을 포함시키고자 함.
 - 설계디자인, 건축, 상설전시 설치물에 약 5억달러 소요될 것으로 예상. 기금의 반은 국회연방정부를 통해 제공되며, 절반인 2억5천만달러는 개인, 회사, 재단, 단체로부터 모금하게 될 것임.
- 전시 및 운영
 - 스미소니언재단 산하 19번째 박물관인 이 박물관은 미국흑인의 삶, 예술, 역사,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자료수집과, 연구, 그리고 프로그램과 전시 설치를 하도록 함(미국흑인의 경험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오브제를 수집).
 - 시카고,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흑인박물관이 있지만, 이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반면, 이 박물관은 미국전역의 흑인 예술과

역사, 문화를 포괄하고자 역사와 문화(History and Culture)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박물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음.

- 박물관 전시의 주제는 세가지: 역사,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로 구성함. 역사공간에는 노예제와 자유, 차별, 1968년을 넘어, 군대역사 등의 제목이 들어감. 문화공간에는 미국흑인음악을 탐험하게 될 음악교차로 코너, 영상물을 전시하게 된 시각예술 코너, 영화 춤, 문학, 커뮤니케이션 등의 전통과 표현에 초점을 둔 문화적 표현코너가 있음. 커뮤니티 공간에는 장소의 힘, 길 만들기, 스포츠갤러리 등의 코너가 있음.
- 전시물 준비에 대해서는 콘텐츠와 컬렉션은 충분하다고 하며, 박물관이 건립되면 연간 3~5백만 관람객 방문을 목표로 함. 인터넷 온라인 접속도 현재 3백만 관람객의 100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음.
- 건립 후 예상 직원은 용역을 제외하고 150~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디언박물관의 경우 270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함. 일단 150명에서 시작하여 모금상황을 지켜보면서 늘려나갈 계획임.

○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

- 건립 경위

- 창립자인 홀리데이부부(Wilhelmina Cole Holladay and Wallace F. Holladay)가 1960년대부터 예술작품을 수집해 옴. 마침 그 당시 학자들과 예술사가들은 박물관수집품과 주요예술전시에서 여성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할 때였음. 홀리데이부부는 20여년간 여성예술가들의 작품 수집과 이를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함.
- 1987년 설립 당시 창립자가 여성운동가는 아니었지만,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함. 처음부터 박물관을 계획하고 수집한 것은 아니고, 여성의 업적들이 밀려나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어, 주변에서 남성위주의 박물관은 많으니 여성의 업적을 기리는 박물관을 만들

라는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함.

- 1981년 11월 비영리 사립박물관인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이하 박물관)을 설립하고, 전시투어를 하다가 1983년 워싱턴 백악관 가까운 곳에 있던 78,810 sq.ft. 규모의 사원(Masonic Temple)을 구입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게 됨.
- 1987년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1830~1930년 시기의 미국여성예술가 특별전을 하게 됨.

- 운영 현황

- 1987년 건립된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은 National 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미국 전국의 개념임.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의 컨셉을 갖고 있음.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만 한정지어 유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어서 25주년을 맞이하여 National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국제적인 규모의 이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여성박물관으로서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박물관 이름에서 예술이라 함은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민속 등을 포괄하고 있음.
- 현재 박물관장은 Susan F. Sterling 으로 1988년 큐레이터로 입사한 이래 수석큐레이터, 부관장직을 역임하였고, 2008년 3월에 관장으로 취임함.
-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아트북스 스쿨,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가족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사진강의, 심포지움, 리딩, 연극, 음악 강의도 하고 있음.
- 현재 직원은 47명이며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있음. 주니어리그오브 워싱턴(Junior league of washington)이라는 조직의 청소년들 50여명과 도슨트(전시해설봉사와 안내봉사)들이 50여명이 된다고 함. 이들 봉사자들을 위한 혜택은 예술사 강의 등으로 훈련시켜주고, 각종 행사 이벤트 초대와 박물관 프로그램과 사은품 가격인하를 해주고 있음.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은퇴자들의 봉사자 지원이 줄어 드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함.

- 현재 예산은 일년에 9백만달러이며, 이중 절반이 모금에 의한 후원금이라고 함. 입장료를 10달러 받고 있음. 주변 내셔널 몰에 있는 박물관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관람객이 많은 이유는 내셔널 몰과 그리 멀지 않은 위치이고, 무엇보다 여성박물관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함.
- 타 박물관과의 연계
 - 추후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Sewall Belmont⁶⁾와 미국여성역사박물관 그리고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을 연계한 “Girl Power Tour”를 하면 좋을 것이라 제안함.
 - ※ 인근 Newseum의 경우 입장료가 25달러로 상당히 비싼 편인데, 시티투어버스 및 다른 유료박물관과 연계하여 할인 티켓을 판매하고 있음.

6) 여성참정권 운동을 한 분이 살았던 집으로 하우스 개념의 박물관임.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시절에 이 집을 국보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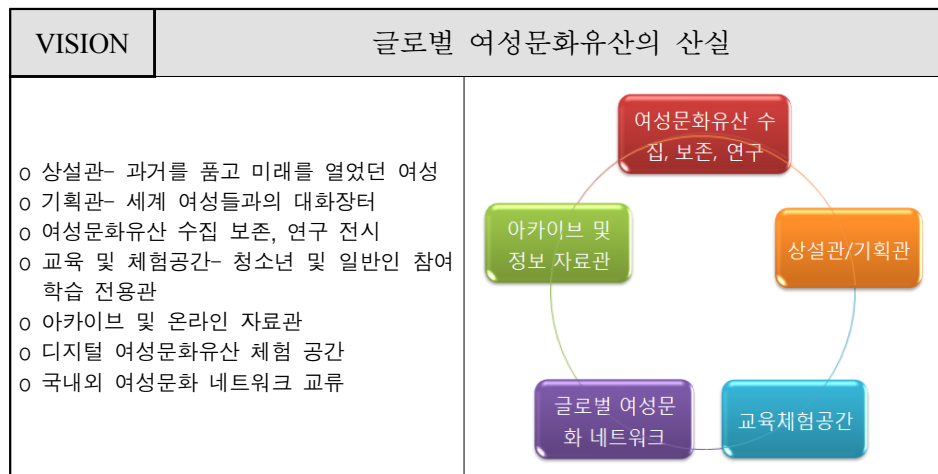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

- 1. 박물관 전시 방향 및 구성 65
- 2. 여성박물관 전시, 어떻게 할 것인가(예시) 68

1. 박물관 전시 방향 및 구성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전시방향 설정 필요

- 박물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¹⁾



- 박물관의 전시방향

- 국립 여성사박물관으로서 여성사의 대표성과 역사성있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표현함.
-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이 여성사 대한 경험과 지혜를 얻도록 함.
- 역사 속에 가려진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림.
- 여성사와 여성문제에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여성의 역동적 활동이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기저를 이룸을 인식할 수 있게 함.
- 여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한민족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여성이 가지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알림.
- 여성운동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양성평등을 통한

1) 이하 본문 도표의 내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2012.4), ‘국립여성사박물관(가칭) 건립 기본방안’, 내부자료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수정·보완함.

인간성의 회복임을 표현함.

- 전통적인 가부장제 인식과 현대의 변화된 여성관 속에서 혼재된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함.
 - 시대, 종교, 사상 등에서 보이는 여성관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여성사의 인류사적 의미를 알림.
 - 여성사의 전반적인 면을 다룸으로써 여성사 연구 및 여성정책 수립, 여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생활과 노동의 현장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삶을 보여줌.
 - 여성의 삶과 역할을 다루는 전문 전시관으로서 여성적 시각을 통한 역사 속 여성의 업적과 역할을 알림.
 - 한민족 여성운동의 확산,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확대, 여성 지위의 향상 등 여성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줌.
 - 여성적 시각에 의한 새로운 역사해석의 공간이며, 미래 여성의 삶의 대안을 제기하고 교육함.
 - 관람객과 전시물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의미의 공유를 유발함.
 - 여성들의 발자취를 담은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이제까지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해석함.
 - 자료를 근거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함.
- <표 IV-1>처럼 분야별 특성화를 이룸으로써 기존 (역사)박물관과 차별성 획득함.

〈표 Ⅳ-1〉 여성사박물관의 분야별 특성화 전략

구분	특성화 전략
전 시 (상설 및 기획전시)	1) 전국에 산재한 여성관련 문화유산 수집, 보존, 연구, 전시 2)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관 및 사이버 박물관 운영 3) 한국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상설전시 4) 일본군위안부, 여성독립군, 신여성 등 일제 강점기 여성들의 삶 전시 5) 산업화, 민주화시대의 경제문화활동 및 스포츠분야 여성의 활동전시 6) 한국 여성사와 세계 여성사, 동양 여성사 비교 전시(기획전) 7) 탈북여성, 결혼이주 등 소외된 여성의 삶에 대한 전시
연 구	1)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 가치에 대한 연구 2) 양성평등 등 사회변화를 일구어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3) 남성 중심 역사 재조명 및 양성이 포함된 통합의 역사 기록 발굴 4) 지역여성, 여성운동, 여성단체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 보존 및 연구 5) 탈북여성, 이주여성 등에 대한 구술 자료 등의 발굴 및 보존
교 육	1) 과거를 담아 현재와 미래 삶의 지침이 되는 여성사 평생교육 2) 역사적 통찰력을 통한 인문학적인 미래 삶에 대한 상상력 고양 3)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행복한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4) 성인지 관점의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5) 주5일제 시행으로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아카 이브	1)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사관련 유물 등 박물관자료 및 구술자료 조사, 수집 및 보존 2) 여성사 관련 인쇄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3) 국내외 여성관련 자료 온라인 링크 및 정보제공
여성 문화활동 공간	1) 미술, 음악, 문학 등 여성문화활동 공간 제공 2)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연구세미나실 제공 3) 각종 여성사 및 여성문화활동 인큐베이터실 운영

2. 여성박물관 전시, 어떻게 할 것인가(예시)

시대순으로 하는 전통적 방식보다는 좀더 흥미있는 접근을 위해 주제관으로 하면서 그 안에 시대를 녹이는 것이 바람직함(국립민속박물관의 예).

<국립민속박물관의 예>

연건평 3781.8㎡. 소장유물(所藏遺物) 7,089점(1990.3.31. 현재). 현재의 모습은 1992년 시설공사를 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옥탑층을 갖춘 건물로 완공.

지하 1층에는 수장고(收藏庫), 지상 1층에는 중앙 홀과 3개의 상설전시장 및 강당, 2층에는 행정실, 3층에는 열람실을 마련. 급속히 소멸해가는 민속관련 유물을 다방면으로 수집한 결과 2012년 1월까지 102,393점에 이르는 방대한 유물을 소장.



출처: <http://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2012.11.2

가. 여성사박물관의 전시 공간과 내용

- 상설 전시관 5개, 기획전시관 1개: 전시관은 유물과 모형(miniature), 디지털 체험 방식 등을 병행 전시
- 그밖에 영상관이 필요하며 체험공간, 강의실, 소극장 등 별도 설치

1) 상설전시관

- [여성의 생활] 고대사부터 근대까지 여성의 의식주 생활상을 보여줌.
- [여성의 일생] 여성의 출생과 성장, 혼인, 출산, 자녀교육, 가족,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를 표현함.
- [여성인물] 한국사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인물을 소개함.
- [여성운동사] 근대이후 달라진 근대교육과 신여성의 등장, 새로운 직종의 등장, 여성참정권의 역사를 조명함.
- [아줌마관] 오랜 역경과 가난, 전쟁을 이겨낸 한국의 어머니상을 조명함.

2) 기획전시실

- 여성관련 개인 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과 연계, 테마전시 등 별도의 전시행사 기획. 개인박물관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들을 테마별로 한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전시물의 풍부함과 다양화, 개인박물관과의 협력, 홍보효과 등의 win-win전략 기대할 수 있음(체험행사는 별도 공간에서 운영).
- 떡박물관, 궁중음식연구원 등과 연계, 떡의 종류와 떡살 등 전시와 떡만들기 체험행사
- 북촌 한상수자수박물관, 강남의 한국자수박물관 등과 연계, 한국자수 전시 및 자수체험
- 화장박물관과 연계, 한국여인의 아름다움과 화장품, 동양미인 비교, 화장품 체험
- 짚풀박물관이나 여주 여성생활사박물관과 연계, 농촌여성의 생활상, 농사도구 등 전시 및 염색 체험, 짚풀 공예 체험

3) 체험관(야외 또는 실내 가능)

- 한옥으로 지어진 체험관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의 방을 재연시켜놓고 ‘조선시대 여성으로 살아보기’, 바느질 체험, 다도체험 등의 체험할

동을 진행

- 마당과 장독대: 김치담그기 체험, 마당극 공연 등 관람
- 강의실용: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으로 만들거나 그리기 등의 체험활동

4) 영상실

- 별도의 영상실과 상설전시장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공간에 소규모 영상실을 배치함.
- 여성 신화나 여성인물 이야기 등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작가, 감독의 영상물 상시 상영함.

5) 소극장

- 여성작가의 작품 또는 여성인물이나 이야기를 극화시킨 작품 공연
- 대극장보다는 200석 규모의 소극장
- 대전 호연재 마당극과 같이 지역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한 사례 순회 공연 유치

○ 기존의 국립박물관 여성유물 대여 전시

- 기존의 국립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에는 여성관련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드러나지 않은채 수장고에 묻혀 있음. 여성박물관이 이를 테마별로 대여 전시한다면 여성유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Ⅳ.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 ●●● 71

기관	여성유물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빗살무늬토기, 흙으로 빚은 여인상, 고대의 여성장신구, 농경문청동기, 고대국가의 여성 장신구, 신라 황남대총의 금관과 부인대, 무령왕비 출토유물, 고려의 수녕옹주 묘지석(외동딸을 공녀로 보내 병이나 사망), 조선초기 부부영정, 딸이 기록된 족보와 아들딸 재산상속을 보여주는 분재기, 명안공주 태항아리, 인목왕후 글씨,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 여성이 시주한 불교유물, 여성들의 한글편지와 기록들, 인현왕후가 만들었다는 여성들의 주사위놀이판	석기, 청동기, 삼국시대 등 고대유물 포함 13만5천여점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혼인관련 유물, 계녀서 등 여성 교훈서, 길쌈도구와 의복, 다식판, 향아리, 여성놀이기구인 쌍륙놀이, 무당의 무구 등	생활민속 유물 10만 2천여점 소장
국립고궁박물관	왕비의 어보, 어책, 의궤, 문서, 영친왕비 적의 등 왕비의 복과 장신구, 공주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명성황후 자수병풍, 순명황후의 해서체 병풍, 효정왕후 71세 축하 잔치 그림, 수빈박씨 경우궁도, 폐비윤씨 태지석과 태항아리 등	조선 왕실유물 4만여점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여성교육을 위해 편찬된 삼강행실도류, 여성지식인의 기록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이방허각의 규합총서, 기녀들이 기록인 소수록, 여성 시인들의 시집 등 여성들의 기록물 소장	-고(古)서 28만여권 소장 -2012년 '여성들의 기록물' 기획전시
서울역사박물관	여성생활사 유물, 가재도구, 가구, 장신구, 의복, 여흥부대부인 민씨 교지, 무당의 부채 등 무구, 여성이 수를 놓은 승려가사, 열녀에게 내려진 투각잡 비녀, 기사사상을 반영한 도끼 노리개, 비녀, 이방자여사 행서 소장	2002년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특별기획전
서울대 규장각, 미술관	규장각: 왕비와 후궁 관련 가례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친잠의궤, 열성왕비세보, 산실청 기록 등의 왕실기록, 혜경궁 홍씨의 혜빈궁 일기, 보모상궁 영전에 쓴 제보모문, 제상궁문, 한글내훈, 가체를 금하는 가체신금서목, 여성지식인 문집인 사임당필적, 난설헌집, 윤지당 유고 등 소장 낙선재에서 왕비와 궁녀들이 읽거나 필사한 한글소설류 2천3백여점 소장 미술관: 양반부녀자들의 놀이기구인 순경도와 윤목,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 그림, 김홍도전 '화장하는 여인' 그림, 신사임당 노련도, 신윤복의 두여인, 용궁부인 무신도 등	규장각 고도서 17만5천여책, 고문서 5만여점

나. 전시 세부계획(안)

[여성생활관]

- 의식주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일종의 셋트장 같은 곳에 고대의 움집, 고대국가의 집(고구려벽화에 나온 부엌의 모습), 기와집과 초가집의 모습, 조선시대의 안방과 부엌, 뒷마당 등을 짓고, 그 안에 여성의 가구와 용품을 배치함. 안방에는 바느질 도구와 책, 부엌에는 식기와 조리도구들, 장독대에는 옹기와 김치재료 등 배치.
- 근대의 주택과 현대의 아파트로 대변되는 여성공간의 변천 과정을 보여줌.
- 관람객이 집에 들어가서 관람할 정도의 규모가 될지, 모형의 형태가 될지 검토
- 추가로 옷의 종류와 변천사, 음식과 조리법의 변천사, 그릇의 변천사 등 생활문화사를 간략하게 보여줌.
- 신화와 제례는 영상물제작 등으로 처리함.

의(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뭇잎에서 옷감으로 발전하기까지 옷감의 탄생사, 발견사 - 길쌈관련 신화(양잠신화 등)나 전설, 그림, 노동요 등 전시 혹은 애니메이션, 음악듣기 - 옷감의 재료인 삼,베,모시,목화,누에솜이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 옷감짜는 도구들: 베틀, 물레 등 - 옷감의 종류와 염색: 삼베, 모시, 비단, 무명의 종류와 염색과정 - 바느질 도구들: 규방칠우 손바느질 도구에서 미싱까지 - 한복의 종류와 역사: 옷으로 완성된 모습이 시대별, 계층별, 계절별, 행사별로 어떻게 다른지, 속옷과 겹옷 등 - 자수용품들: 복주머니, 베갯잇, 보자기 등 여성의 숨씨가 묻어나는 자수용품 소개 - 머리모양과 장신구: 머리모양의 변천사, 조리개 등의 장신구 - 특정 직업의 옷: 궁녀, 무녀, 왕실여성, 기생, 양반과 서민여성(일복) - 복식관련 무형문화재 소개 - 빨래하는 여인들: 빨래와 다듬이질, 재봉의 반복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사진전) ☆체험활동: 베틀체험, 길쌈대회, 목화솜 짜기, 누에관찰, 한복입어보기, 자수하기 등
------	---

	<div data-bbox="451 445 834 712"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42 445 1225 712"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46 716 767 750" data-label="Caption"> <p>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물</p> </div>
<p>식(食)</p>	<div data-bbox="411 779 1182 1126"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목생활에서 농경의 시작으로 변화된 식문화사, 음식조리의 역사 - 그릇의 역사: 빗살무늬토기에서 옹기, 자기, 유리, 플라스틱까지 - 떡, 술, 김치, 장, 한과의 종류 - 행사음식: 잔치상, 회갑상, 제사상, 사당음식, 궁중요리(수라상) 등 - 부엌, 장독대의 재연 - 식 도구들: 그릇, 상, 항아리, 소주고리, 떡살, 멧돌 등 - 식 관련 신화나 설화(주왕신, 장독대신, 액을 쫓는 풍습들) - 음식관련 무형문화재 소개 - 안동 장씨의 음식디미방, 이 방허각의 규합총서 소개 <p>☆ 체험활동: 한과, 김치 만들기, 소주고리 실험, 술담그기, 떡살로 무늬찍기 등</p> </div> <div data-bbox="451 1144 834 141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42 1144 1225 141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51 1422 834 168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42 1422 1225 168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46 1691 770 1724" data-label="Caption"> <p>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물</p> </div> <div data-bbox="834 1691 1121 1724" data-label="Caption"> <p>출처: 남산 한옥마을 사진</p> </div>

주(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역의 변천사: 여성이 일하는 공간으로서 부역은 원시시대 움막에서부터 별도의 여성 공간으로 변천 - 내외법에 근거한 안방구조, 내외담 등 지방별 특징 소개 - 안방의 모형 안에 조성된 모습과 가구들: 바느질하는 여인, 공부하는 여인, 아이들 가르치는 여인, 놀이하는 여인 등 - 여성용 가구들: 옷장, 장식장, 화장대 등 - 집이나 터와 관련된 신화, 설화(성주신, 산신할머니, 풍수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출처: 서울대 미술관 무산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출처: 남산한옥마을</p> </div> </div>
------	---

[여성의 일생(평생도)]

- 혼인 전의 성장: 교육, 놀이, 바느질, 성인식(계례), 내혼 등의 부덕(婦德)을 기르는 책들 소개
- 혼인: 혼인문화, 재산권 상속, 호주문제 등 출가외인은 언제부터?
- 임신과 출산: 출산풍습, 태교(이사주당의 태교신기, 왕실의 태교 소개)
- 부부: 중부이야기, 원이 엄마의 편지 등 애절한 여성의 편지 소개
- 가족: “집안을 지키는 여인들” 자녀교육과 출가, 손님접대와 봉제사 등 역할
- 회갑과 회혼례, 여성의 출세(외명부 품계)
- 죽음: 장례문화

[여성인물]

역사적인 공적을 남긴 여성들,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들을 소개(사진이나 영상, 스토리텔링)

- 소서노
- 선덕여왕
- 정희왕후
- 소혜왕후
- 명성황후
- 논개
- 신사임당
- 허난설헌
- 이빙허각
- 유관순

[여성운동사]

근대이후 달라진 여성상

- 근대교육과 신여성들
- 직업전선의 여성들: 성냥공장 아가씨, 버스안내원 등 노동여성 소개
- 여성의 참정권

[아줌마관(한국의 어머니상)] 디지털 영상관 성격

오랜 역경과 가난, 전쟁을 이겨낸 한국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조명

- 행주산성의 행주치마 여성들, 밥할머니 소개
- 한국 아줌마(어머니)의 이미지: 사진 등의 이미지 영상
- 아줌마 관련 영화나 만화, 에피소드 소개
- 교육열이 투철하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한국의 어머니들



자료설명: 최민식 작품



자료설명: 명동아줌마 영화 포스터

V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관련법 제정	79
2. 지지자원 확보	91
3. NWHM 및 유관 박물관 사례들의 시사점에 유의한 건립	95
4. 박물관 건립추진 방안	98

1. 관련법 제정¹⁾

- (가칭)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설치근거 및 예산지원 근거 법령이 필요함.
문제는 기존의 법률 체제 내에서의 건립추진과 새로운 관련법 제정을 통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해당 내용의 검토를 위해서는 국내 기존 역사박물관의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례인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원법률안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관련법 입법 검토는 국립여성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 및 법제 일반사항에 관한 검토이며, 박물관 설립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화재 자료양여에 관한 법적권리 및 관리처, 예산지원, 책임관리 주체 등은 내용이 결정된 후에 확정해야 함.

가. 국내 역사박물관의 설치근거 및 검토의견

- 국립중앙박물관
 - 설치근거법명: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동일법 시행령, 동일법 시행규칙
 - 본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1)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2)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3)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4)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을 그 대상으로 하며, 4개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등록, 유희공간 사용, 관리운영, 자료양여, 경비 보조, 지도감독처에 대한 기본규정을 다루고 있음.

1) 관련법 제정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입법전문가(이혜진 의원보좌관)에게 한국여성역사박물관 건립법안 컨설팅 의뢰한 결과임.

-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국립중앙박물관은 동법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국립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속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로서, 해당 조직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또한 전문인력의 운용 또한 대통령령에 별도 규정을 두어 채용, 관리하도록 하며, 신분상의 지위는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함. 다만, 동규정은 경비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제24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박물관의 신규설립 예산확보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박미법 제2조 (정의)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박미법 제10조 (국립박물관 설립운영)	<p>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p> <p>②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p> <p>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p>

	<p>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p> <p>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p> <p>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박미법 제16조 (등록사항)	<p>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p> <p>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박미법 제24조 (유휴공간 활용)	<p>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p>
박미법 제24조 (경비보조)	<p>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p> <p>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p> <p>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p>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설치근거법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
- 본 법은 현재 추진 중인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형태와 가장 흡사한 국내 박물관 건립유형으로, 2012년 12월 26일 개관한 신규 박물관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근거 및 박물관 운영 규정과 다른 형태로서, 국무총리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즉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방식을 취함.
- 시행령 일부개정 방식이나 종전의 「국립대한민국관건립위원회규정」 제3조, 제73조의 운영주체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으로 하도록 부칙 개정을 함. 사실상 정부입법 효과는 시행령제정의 효과를 가지도록 함.
- 주요내용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임.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2월 11일 구성되었으며,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임.
 - 심의사항 내용: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 소장품 수집, 추진상황 점검 평가
 - 위원 구성: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은 총 29명 구성/ 임기는 3년 (당연직은 10명, 위촉직은 19명임)
 - 실무추진단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을 구성함

- 관련규정 전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시행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2호, 2009.10.19, 일부개정]

제1조 (설치)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0.19>

제2조 (기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9>

1.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5.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2. 외교·안보, 경제·사회, 교육·과학, 문화·예술·체육, 근·현대사, 박물관, 도시계획·환경, 건축·설비, 언론·홍보, 디자인 및 콘텐츠 기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자문위원 등)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9.10.1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제목개정 2009.10.19]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고문,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1782호, 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구성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영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

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 검토의견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해서 법률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함.

- 첫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사례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주무부처 문화관광부) 하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도입 단계부터의 입법지원임.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라면, 국무총리 소속,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국회 입법절차(법제정) 없이 대통령령 정부입법으로 가능함.
- 다만, 안정적 예산지원과 행정운동을 위해서는 정부입법 규정 시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운영 및 예산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안은 실무추진단 구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력 집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임. 신속한 업무진행에 유리하지만,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범정부 추진사업이라는 정부 부처간 합의가 필요함.

- 둘째,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

립미술관 건립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안임.

- 본 안의 특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부서로 건립추진 및 설립 이후 운영하므로 설립권한과 관리감독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집중됨.
- 따라서 부지선정, 관련 재원마련, 전문운영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전시물에 대한 권한과 권리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장점이 있으나, 주무 부처의 업무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속도에 차이가 발생함.

나. 미국여성역사박물관법 제정안 내용 및 검토의견

○ 미국여성역사박물관법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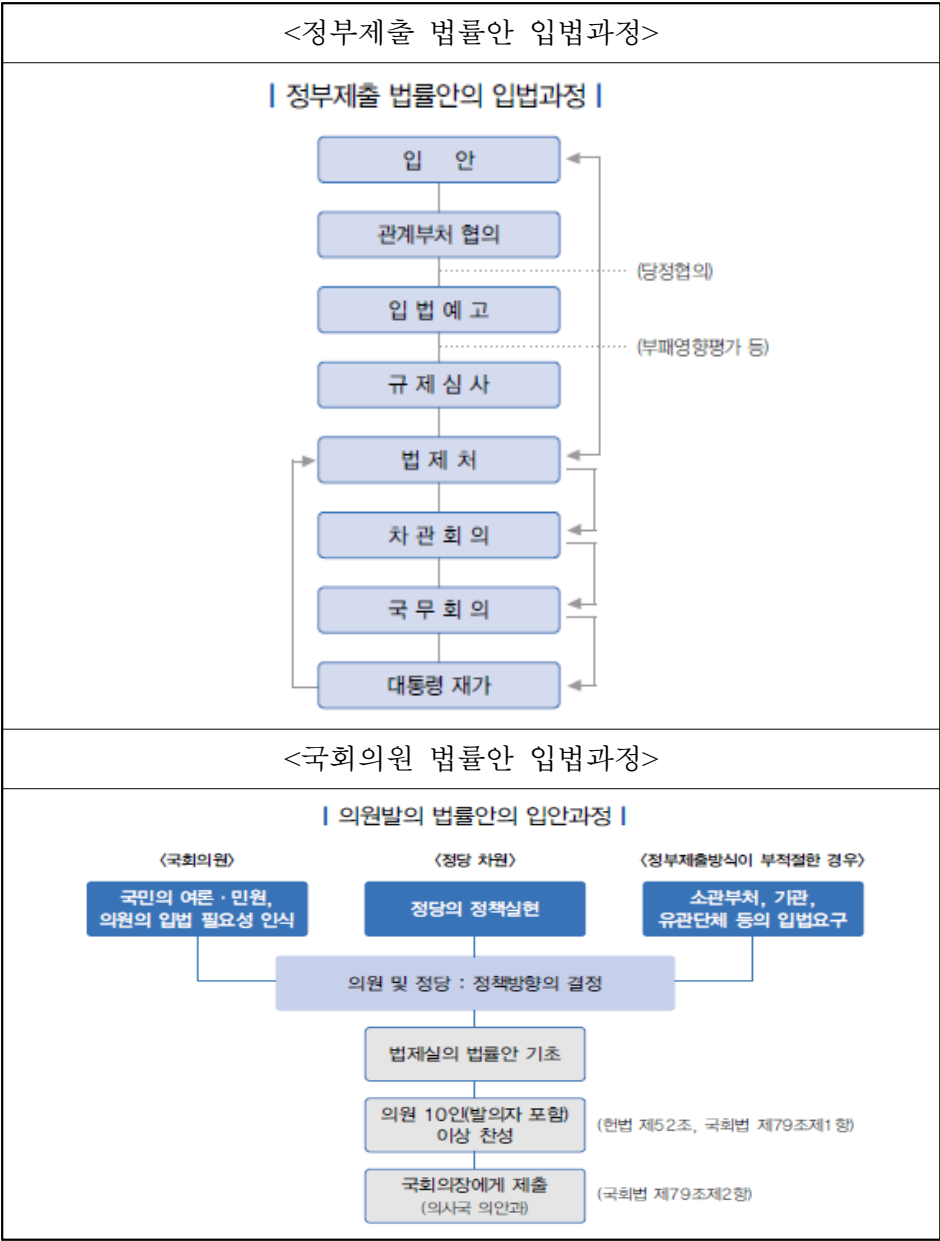
- 미국법은 박물관 부지마련, 행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관할권·관리권·통제권에 대한 권한, 역사박물관건립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개별 안건마다 지원근거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의 건립규정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국회 상원·하원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었고, 각각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로 분리 상정되었음.
 - S.680 미국역사박물관 건축부지 확정을 위한 법(2011.3.30.)
 - 국회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로 회부됨.
 - H.R. 2844 국립미술관의 행정상 관할권 확정을 위한 법(2011.8.7.)
 - 국회 교통·사회공공기반시설위원회로 회부됨.
 - S.3567 미국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법(2012.9.19.)
 - 국회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회부됨.

○ 검토의견

-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부지마련, 행정지원 및 권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원조달계획, 기본시행계획 등 해당 입법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동일한 법률내에서 처리하며, 해당 주무부처가 포함된 상임위원회로 회부됨. 따라서 미국법에 따른 사안별 상임위원회 분리와 별도 입법은 한국 입법 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다.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의 정부입법, 의원입법 절차 및 입법요소

○ 입법절차 개관



출처: 국회법제실(2011), 법제실무. p.19, p22.

○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제정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입법 요소

※ 별도 입법 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통한 근거마련은 가. 항목에서 검토했음. 아래 사항은 별도 입법 제정시 포함해야 할 기본적인 입법 요소를 정리함

- 입법목적 규정
- 정의: 박물관 개념정리,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정의
- 사업내용: 국립여성박물관의 사업 수행 범위를 명시해야 함
(예)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학술연구, 교육, 간행물제작 등
- 추진주체: 한시적 형태로의 추진단 구성을 할 경우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 예산 및 재산기부 사항: 박물관 사업은 재산기부, 전시물 기부에 관한 권리사항, 재원부담 주체와 세제 면세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를 확정해야 함
- 전문운영인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부지마련 및 유희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타 지자체 활용재원인 경우 권한 관계 정리, 유희공간 무상대여 등에 관한 규정
-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박물관의 개관, 폐관, 자료양여, 경비보조, 등록취소, 보고, 타 박물관과의 협조 사항 등
- 타 법률과의 관계 및 부칙 정리

90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 세계관련 검토사항

구 분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박물관 건설시 소유권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기부금 공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박물관에 기부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전액을 공제받도록 적용

○ 용자제도관련 검토사항

구 분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의한 용자지원 범위확대	국민관광진흥사업 건설자금과 개보수자금에 대한 용자대상: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미술관, 박물관으로 제한	관광지 외의 박물관으로의 확대 적용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에 대한 용자 제도	박물관의 문화상품개발에 따른 개발비용 지원 및 저리용자 제도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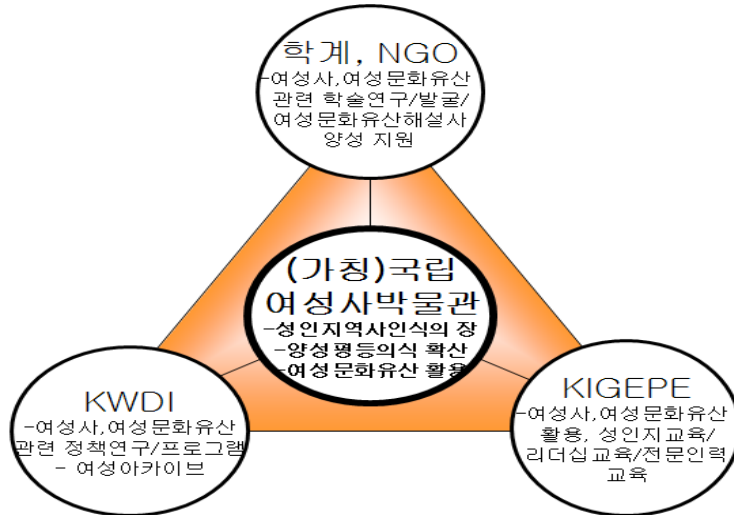
○ 행위제한 관련 검토사항

구 분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국제적 멸종 희귀물의 용도 변경 승인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1항 내지 2항	국제적멸종희귀물을 박물관·과학관 및 학 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교육 및 이용을 위 하여 기증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가능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1항내지2항	생태계위해 외래 동·식물을 박물관·과학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 여 기증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가능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설치 허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1항, 시행규칙제7조 1항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공익 상 필요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범위에博物 관및미술관 포함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공·사립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국립중앙박물관 제1회 박물관정책 세미나 자료, p.177~178

2. 지지자원 확보

가. 여성문화유산 관련 국내 인프라의 기능적 네트워킹



[그림 V-1] 여성문화유산 관련 국내 인프라의 기능적 네트워킹 개념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정책을 둘러싼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대표적인 국책기관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주요 인프라임. 이들 기관 각각의 미션에 부합하는 고유기능들간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연계망 형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유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도 필요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문화유산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과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각종 교육과정에서 여성문화유산 활용
 - 양 기관의 연간 방문객 및 교육생들을 통한 박물관 관람인원의 양적·질적 확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련 지식 콘텐츠 아카이브」 사업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ON/OFF Line상의 <여성 Archives>를 구축
 - 여성사 및 정책사의 증거가 되는 기록의 전후 연관관계를 파악·체계화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국여성사 및 여성단체, 여성인물, 여

성정책 사료(史料)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관리·보존하여야 함.

- 아울러 민간 및 학술투문 여성사관련 인프라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한층 확산되어온 지역의 여성사연구 모임이나 관련 시설 등을 파악하여, 관계망 형성하고 교류협력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 여성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여성문화유산해설사들과의 조직적 연계 방안도 필요.
 - 여성문화유산해설사: 국가적 아젠다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적자원 활용 등과 관련한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의 예

나. 국내외 여성박물관 네트워크 참여 강화

- 국내적으로, 전국 각지에 산재한 여성문화유산 관련 기구·시설들을 연계해낼 수 있는 중앙의 거점시설 역할 필요
 - (가칭)한국여성박물관연합회 구성
 - 전국 여성문화유산해설사들의 구심체 역할: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
-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womeninmuseum)²⁾가 주관하는 세계여성박물관회의³⁾에 적극 참여
 - 세계여성박물관회의 국내 유치
 - 여성문화유산을 통한 국제적 교류·협력

2) 2012년 현재 각 대륙에 걸쳐 32개 국가의 총 55개 여성박물관(전시관)이 참여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여성사전시관> 참여함.

3) 제1차-제4차 세계여성박물관 회의

다. 여성가족부 소관 박물관으로서 공익성 및 대중성 획득

- 정부 부처 가운데, 소관법률을 갖춘 박물관을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곳 있음. 이 경우, 특정 분야를 다루는 국립박물관으로서 공익성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통한 대중성 확보 가능함.
- 현재 정부 부처 가운데, 산하에 박물관을 두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음.

〈표 V-1〉 정부부처의 유관 박물관 현황

부처	박물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전본원 「국가기록전시관」
		대통령기록전시관
		역사기록관 「기록문화전시관」
		성남 나라기록관 「국가기록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차수	개최지	시기	비고
1차	이탈리아 밀라노	2008.6	
2차	독일 본	2009.9	한국 참가
3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10.5	한국 참가
4차	호주 엘리스 스프링즈	2011.5	
5차	중국 서안	2014(예정)	

부처	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속부처 명칭 변경: 2008.2. 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박물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설립근거: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경찰청	경찰박물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박물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세박물관	
산림청	국립산림박물관(국립수목원 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기타 국립 박물관	화폐금융박물관(한국은행)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철도박물관(한국철도공사)	
	국립등대박물관(항로표지기술협회) * 건립계획 수립: 포항지방해운항만청, 영일군 * 운영 민간위탁: 2005.1.1.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로표지기술협회	
	전쟁기념관(전쟁기념관사업추진위원회) * 건립 추진: 국방부(대통령 건립 지시) * 설립근거: 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 제4076호)	
	한국체육박물관(대한체육회)	

출처: 각 부처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조직도 및 연혁 참조)

- 여성역사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설치하는 안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설치하는 안 등 두가지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
- 문화관광부 소관안: 박물관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한 설치안일 수 있겠으나,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추진 배경을 상기할 필요 있음. 즉, 기존 박물관들이 역사 속 여성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추진의 출발점임을 고려한다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한 부처를 주관부처로 할 필요 있음.
- 여성가족부 소관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확산과 이에 기반한 여성 인식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산하에 위치시켜 안정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위 두안을 절충하여,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에는 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음.

3. NWHM 및 유관 박물관 사례들의 시사점에 유의한 건립

- 본 연구를 위해 벤치마킹한 미국의 여성역사박물관 건립 과정 및 여타의 유관박물관 사례들이 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유의하여, 한국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필요 있음.
- 박물관을 통한 새로운 여성교육의 시도: 한국의 경우도 (가칭)국립여성역사 박물관 건립 과정을 통해 첫째, 여성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부각시켜나갈 수 있는 교육기능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우선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여성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여성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박물관: 한국의 경우, 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 할 경우, 여성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겠지만, 여성들의 문화적 성취, 업적물을 포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박물관으로 예술적 이미지의 전시개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 미국 흑인역사문화박물관이 역사와 문화를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의 여성역사박물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내 여성박물관들이 여성들의 문화적 산물인 수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함.
 - 따라서 국립여성역사박물관(또는 한국여성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의 건립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여성역사문화박물관’이 바람직한 이유
 - 역사박물관은 시대연대에 따른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전시될 것임. 시대적 영향에 의한 여성들이 남긴 문화적 성취물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임. 여성, 인종, 소수민족 등의 경우 역사적 연대기 나열보다는 특정집단이 정착해나가는 문화적 특질이 더 중요하고 의미있을 수 있음.
 -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의 경우, 아프리카 흑인이 미국이라는 상황에 만들어진, 만들어가는 문화적 결과물에 비중을 두어 ‘문화’를 명칭에 포함시킴.
 - 일본의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의 경우도 나가사키라는 지역적 특징에 의한 결과물로서 문화적 산물에 초점을 두어 ‘문화’를 명칭에 포함시킴
 -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가동하여 준비중임.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만들어낸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중점을 두어 명칭에 ‘문화’를 포함시킴.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 바람직한 이유⁴⁾

4)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강영경교수(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가 밝힌 자문의견임.

- 역사의 개념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인간 삶의 총체적 활동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화’를 명칭에 넣으면 오히려 그 중의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국립’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면서 세기를 넘어서는 시간성을 포괄해야 함. ‘문화’는 21세기의 키워드이지만 시류(時流)에 영합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국립’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려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로 충분함.
 - 명칭은 간결할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은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명칭임.
- 박물관 봉사자 활성화: 미국여성역사박물관,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봉사자 활용 방안도 한 영역으로 포함할 필요 있음. 이는 여성 전문인력 활용과 인력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건축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도입: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은 21세기 뮤지엄으로서 창조와 혁신,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의 환경박물관 녹색 박물관(Green Museum)임에 착안하여 한국의 국립여성역사박물관도 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냉난방을 비롯하여 환경과 여성이미지를 고려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임.

4. 박물관 건립추진 방안

가. 박물관 위치선정의 기본 방향

○ 박물관의 입지 및 중점 운영방향을 고려한 위치 선정 필요⁵⁾

- 박물관 입지의 기본방향
 -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환경이 비교적 좋은 지역
 - 국립 여성역사박물관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성에 부합하는 지역
 - 첨단 전시환경을 구비할 수 있는 장소
- 박물관의 중점 운영방향

지향점	문화 유산 보고 박물관	전시/교육 및 정보 센터	글로벌 다문화 체험 및 공간
강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사박물관으로서 기능강화 · 유물 및 자료 수집 확충 · 아카이브 및 수장고 기능강화 · 여성사+문화예술 · 거버넌스(후원/협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여성문화 유산 센터 · 청소년 고전읽기 · 역사속 양성평등 문화 체험 · 평생교육 학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박물관기능 확대 · 국내외 여성문화 교류 네트워크 · 다문화 체험교육 · 자료 정보제공

-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면서 자연경관이 쾌적한 시설 확보
- 여성전통문화의 보고인 동시에 세계속에서 우리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 산실
- 국내외 관람객들이 여성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 여성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장소
- 온라인 박물관 기능 강화로 한국의 양성평등문화와 여성사 관련 정보센터

5) 각주 3과 동일함.

나. 박물관 건립(안)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 및 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안을 제시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 리모델링에 의한 건립
 - 건립위치: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 (국무총리실 소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기부채납)
 -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법규 여부, 용도 변경 등 건립 타당성 조사 실시.
 - 법령 및 규제 저촉, 용도 변경, 개보수 또는 신축 조사 등 확인
- 위치 선정 사유⁶⁾
 -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과 접해있어 부대시설 활용가능
 - 비교적 일반대중의 접근성이 좋으며, 자연경관이 무난한 편
 - 여성공동의 장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다목적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임
 - 인근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등)과의 벨트효과 기대 가능
- 건립규모: 지상 3층 규모, 약 900평(2,970㎡)
- 건립(예시)⁷⁾
 - 설계 개요

구분	설계내역	비고
사업명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축설계	리모델링 설계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공동의장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7,771.54㎡	

6) 각주 3과 동일함.

7) 본문에 제시된 설계 개요, 실별 면적표, 소요예산 그리고 설계 도면 등은, 공간전문가(배경자 건축사무소 공간창조 소장)에 컨설팅 의뢰한 결과임.

구분	설계내역	비고
도로현황	남측30m도로	
	박물관	
	다목적홀	
연면적	7,730.09㎡(7,392.21)	증축 337.88 포함
건축면적	2,079.671㎡	
건폐율	28.22%	법정60%
용적률	79.02%	법정200%
구조	박물관: 철근콘크리트조 다목적홀: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4.85m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50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법정: 200㎡/1대

- 실별 면적표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지하층	전기/기계/발전기실	313.81	
	공용면적	802.05	
	소계	1,115.86	
지상1층	제1전시실	432.00	
	준비실	59.40	
	기계실	61.2	
	HALL	298.8	
	공용면적1	160.10	
	다목적홀	540.00	
	공용면적2	866.00	
	소계	2,417.50	
지상2층	제2전시실	432.00	
	준비실	45.00	
	휴게실	39.6	
	영상실	54.00	

V.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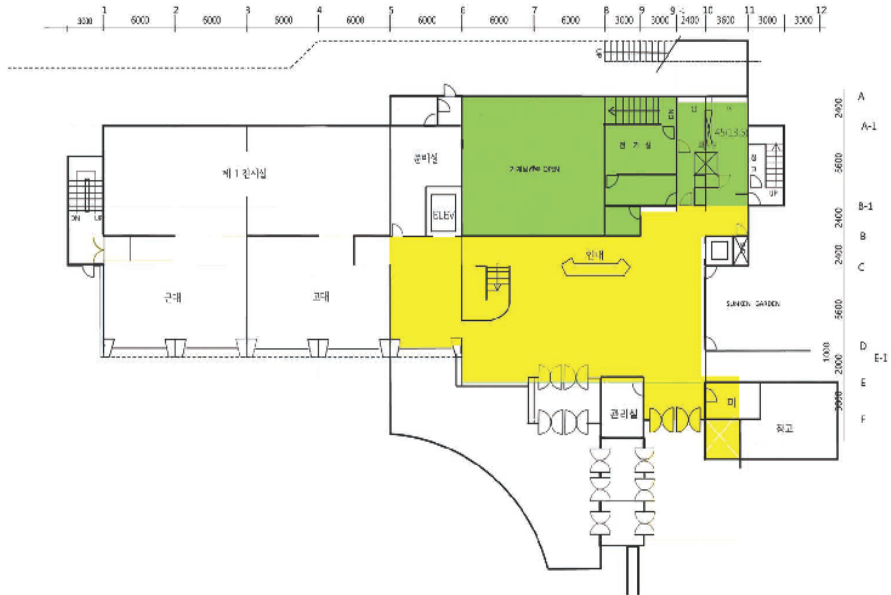
층별	용도	면적(m ²)	비고
	체험실	108.00	
	공용면적1	262.93	
	다목적홀	1,079.60	
	소계	2,021.13	
지상3층	제3전시실	432.00	
	준비실	45.00	
	휴게실	39.6	
	기획전시실	162.00	
	공용면적	233.80	
	옥외전시실	249.44	면적제외
	소계	912.40	
지상4층	강의실1	108.00	
	준비실	45.00	
	강의실2	108.00	
	강의실3	54.00	
	실습실1	39.60	
	실습실2	39.60	
	휴게실	39.60	
	공용면적	200.00	
	옥외휴게실	216.00	면적제외
	소계	687.80	
지상5층	관장실	54.00	
	회의실	39.60	
	휴게실	39.60	
	사무실	45.00	
	학예사연구실	54.00	
	자료실	108.00	
	공용면적	235.2	
	소계	575.4	
총 연면적		7,730.09	

-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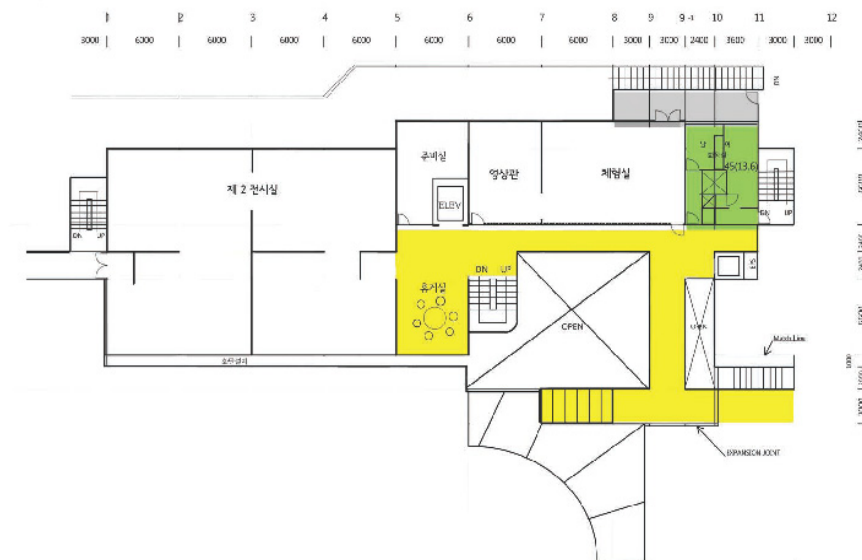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예정 공사비				
1. 연면적: 7,730.09 ㎡ (리모델 변경 면적: 4,128.63 ㎡, 전시실 면적: 1,620 ㎡)				
1. 설계 및 감리				
공 사 내 용	단위	수량	예 정 공 사 비	비 고
1. 기본 설계				
1) 건축 계획설계비(전시설계 제외)	식	1	20,000,000	설계비의 25 %
부가세(10%)			2,000,000	
기본 설계비 합계			22,000,000	
2. 실시 설계 및 감리				
1) 건축 설계비	식	1	87,500,000	공사비의 3.01 %
2) 건축 감리비	식	1	28,000,000	공사비의 1.41 %
3) 내부 전시관 설계 및 감리비	식	1	115,000,000	공사비의 4.99 %
합 계			230,500,000	
부가세(10%)			23,050,000	
설계,감리비 합계			253,550,000	
2. 예정 공사비 산출				
1) 건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식	1	90,000,000	
2) 건축 공사(전기,기계 설비 포함)	식	1	1,850,000,000	
4) 부대 토목 공사	식	1	40,000,000	
3) 전시관 내부 조형및 인테리어공사	식	1	3,000,000,000	크린룸, 방범설비 포함
순공사비 합계	식	1	4,980,000,000	
5) 공과 잡비(이윤 포함)	식	1	1,245,000,000	순공사비의 20 %
합 계			6,225,000,000	
부가세(10 %)	식	1	622,500,000	
공사비 합계			6,847,500,000	

2. 별도 공사				변경에 따른 분담 금등
1) 한전 분담금	식	1	12,000,000	
2) 도시 가스 설비	식	1	20,000,000	
3) 전화 통신 설비	식	1	25,000,000	
합 계			57,000,000	
부가세(10 %)	식	1	5,700,000	
별도 공사 합계			62,700,000	
총 공사비 합계			7,185,750,000	
* 상기 공사비는 예정 산출된 금액으로 기본 설계 및 본설계 완료에 따라 증감의 여지가 있음 * 아울러 건축 재료 마감 및 기계, 전기, 전사 내용에 따라 공사비 증감의 폭이 커질 수 있음				

- 설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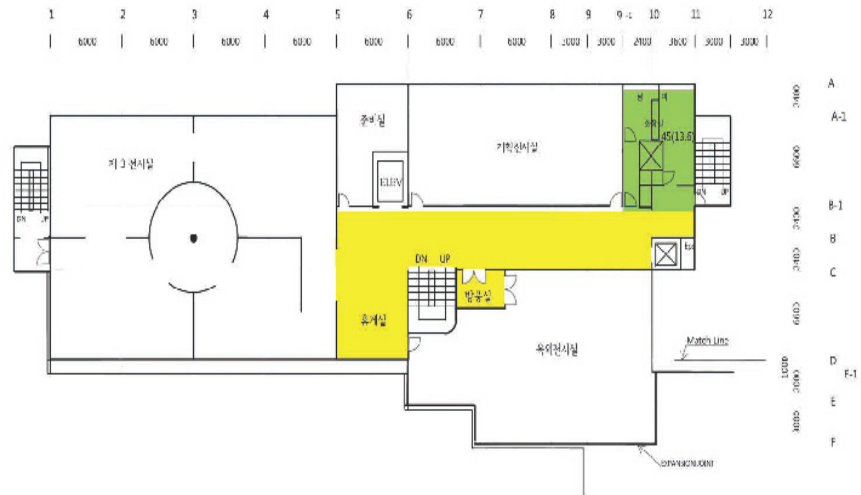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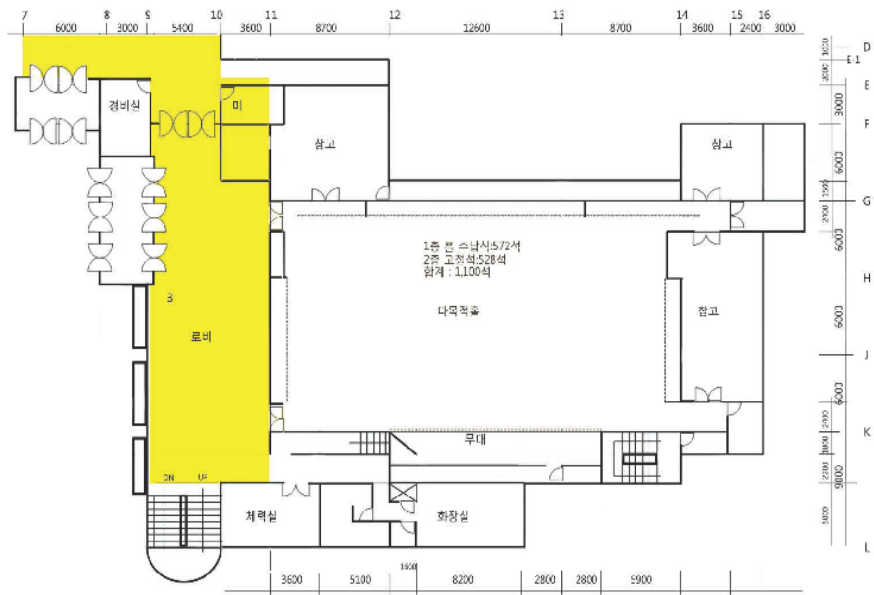
■ 1층 전시관 평면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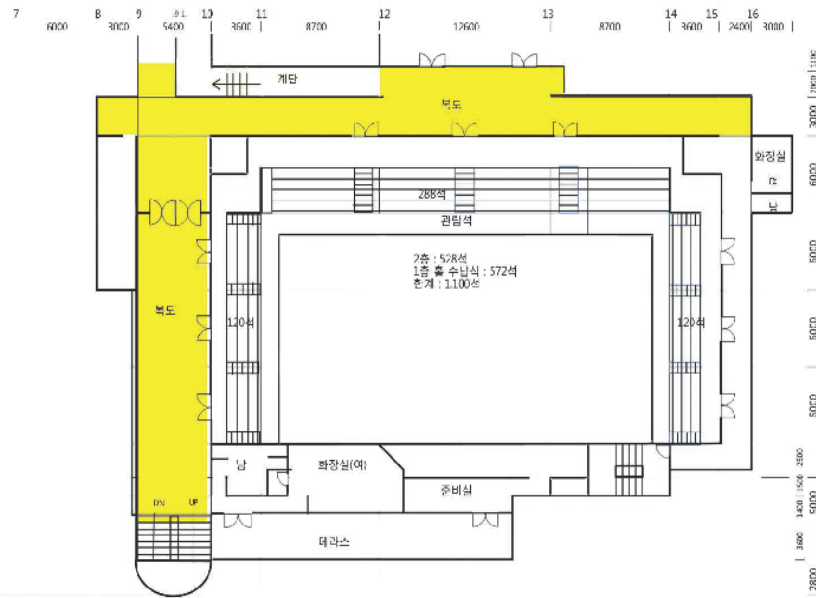
■ 2층 전시관 평면도(계획안)

V.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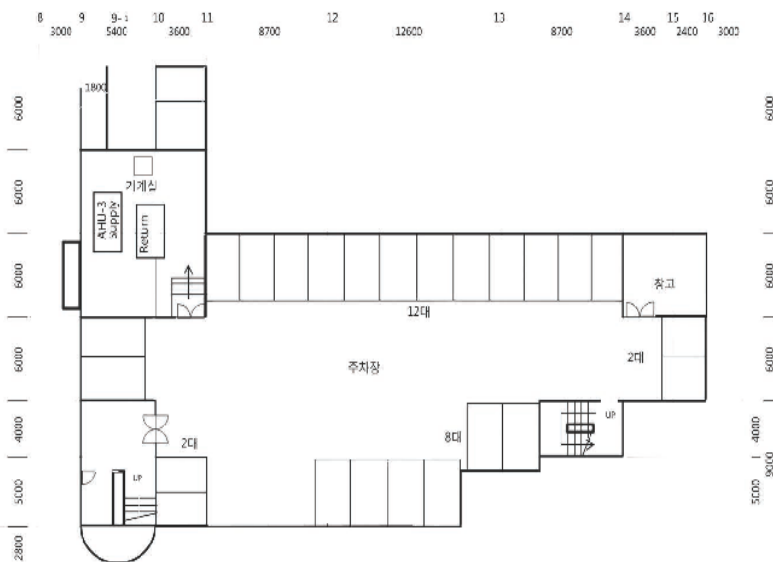




V.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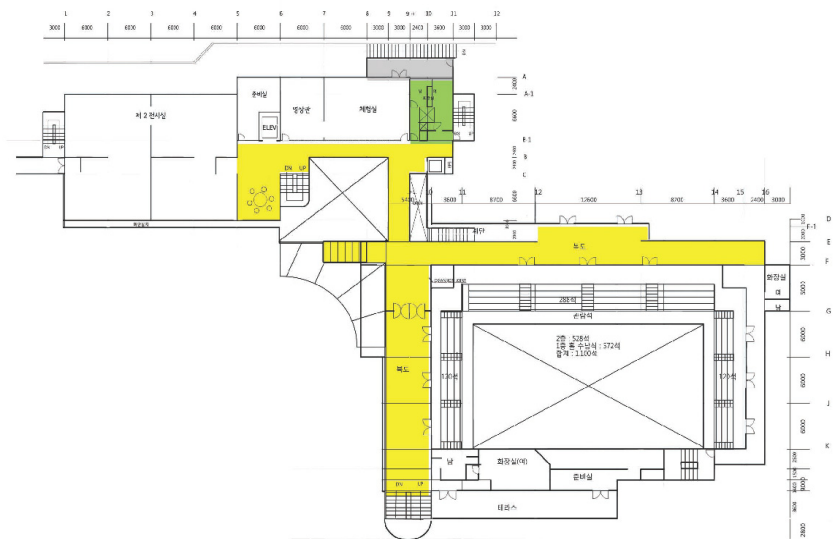
■ 다목적홀 2층 평면도



■ 다목적홀 지하 1층 평면도



■ 1층 전시관 및 다목적홀 평면도(계획안)



■ 2층 전시관 및 다목적홀 평면도(계획안)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편(2010), 『국립박물관연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2009), “공·사립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국립중앙박물관 제1회 박물관정책 세미나 자료, p.177~178
- 김향자(2012),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규정,
[시행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2호, 2009.10.19,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여가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2.11.21.일자)
- 심원섭(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2.
- 『한국의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관광동향분석’(2012.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nwhm.org/> 2012.11.2. 검색
- <http://www.womeninmuseum.net/blog/wp-content/uploads/2010/06/mdm-del-mundo-01-05-2010.pdf> (2012.09.29 검색)
- http://www.womeninmuseum.net/blog/?page_id=5902 (2012.10.07. 검색)
- <http://www.womeninmuseum.net/blog/?m=200909> (2012.10.11. 검색.)
- <http://www.womeninmuseum.net/blog/> 2012. 11.2 검색
- <http://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사이트



부 록

〈부록 1〉 부표	113
〈부록 2〉 여성역사박물관 설립에 관한 법률안 [미국]	123

〈부록 1〉 부표

〈부표 1〉 세계의 주요 여성박물관 현황

1	국가	덴마크(1)
	이름	Kvindemuseet Denmark
	건립시기	1857년 건립, 1991년 국가 인정
	운영주체	자치기관(self-governing institution)
	위치	Domkirkeplads 5
	총면적	1200 평방 미터
	예산	12 mill. D Kr
	컨텐츠	덴마크 문화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삶과 일에 관한 작품 전시 및 연구
	관장	Merete Ipsen
2	국가	덴마크(2)
	이름	Kvindemuseet Denmark
	건립시기	1984. 1991년에 국가 승인
	운영주체	국립
	위치	Domkirkeplads 5
	총면적	2200
	예산	12 mill. D Kr
	주요 컨텐츠	덴마크 문화 역사에서 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지식 조사, 연구 및 컬렉션.
	공동 관장 및 큐레이터	Merete Ipsen/ Lene Mørk/Bodil Olesen
3	국가	노르웨이(1)
	이름	Kvinnemuseet
	건립시기	1995. 5월 31일
	운영주체	국립, Majesty Queen Sonja에 의해 건립
	위치	Rolighed, Kongsvinger
	총면적	300 square meters
	예산	NOK 3.5 million
	주요 컨텐츠	여성 역사 전시, 청소년들에게 과거 여성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무명 여성의 노력을 인정하고 재평가하는 것, 문화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제공.
	관장	Kari Sommerseeth Jacobsen

4	국가	노르웨이(2)
	이름	Kvinnemuseet
	건립시기	1995. 5월 31일
	운영주체	국립, Majesty Queen Sonja에 의해 건립
	위치	Rolighed, Kongsvinger
	총면적	300 square meters
	예산	NOK 3.5 million
	컨텐츠	여성 역사 전시, 청소년들에게 과거 여성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무명 여성의 노력을 인정하고 재평가하는 것, 문화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제공.
	관장	Kari Sommerseth Jacobsen
5	국가	스웨덴
	이름	Skellefteå
	건립시기	시립
	운영주체	
	위치	
	총면적	
	예산	public funding
	컨텐츠	여성 예술 중심
	관장	
6	국가	오스트리아
	이름	Frauenmuseum
	건립시기	2000년 7월
	운영주체	시립
	위치	space 501, A-6952 Hittisau
	총면적	
	예산	
	컨텐츠	전시회, 사회적 및 문화적 역사, 예술, 건축물등 관련
	관장	Stefania Pitscheider Soraperra
7	국가	독일(1)
	이름	Frauenmuseum, Bonn
	건립시기	
	운영주체	건물 비용 시립,

	위치	
	총면적	
	예산	
	컨텐츠	
	관장	Marianne Pitzen
8	국가	독일(2)
	이름	Frauenmuseum, Bonn
	건립시기	1981년 3월, Marianne Pitzen
	운영주체	학회, Women's Museum - Art, Culture, Research
	위치	Bonn
	총면적	3,000 평방 미터
	예산	project grants and support programmes, donations
	주요 컨텐츠	세계 최초 여성 박물관, 여성 예술가 육성, 여러 아카데미 운영
	관장	Marianne Pitzen
9	국가	독일(3)
	이름	women museum wiesbaden
	건립시기	1984
	운영주체	비영리기관
	위치	
	총면적	
	예산	
	주요 컨텐츠	역사, 문화, 과학계의 여성들을 집중 조명함.
	관장	
10	국가	네덜란드
	이름	FemArtMuseum
	건립시기	
	운영주체	의회, council
	위치	
	총면적	
	예산	
	주요 컨텐츠	
	관장	Freda Dröes

116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11	국가	아르헨티나
	이름	Museo de la mujer argentina
	건립시기	2006년 08월 11일
	운영주체	
	위치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Passage Dr.R.Rivarola 147
	총면적	
	예산	
	컨텐츠	수집 및 연구 프로그램, 음악 및 영화 프로그램, 인적자원프로그램, 쇼 및 전시회, 경제자원 프로그램, 이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관장	Graciela Tejero Coni
12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이름	National Pioneer Women's Hall of Fame
	건립시기	1993년 05월 08일
	운영주체	비영리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위치	Northern Territory에 있는 Alice Spring
	총면적	
	예산	Northern Territory Regional Museums Grant program 및 Smaller local and state government grants에서 펀딩을 받았지만 장차 자립하고자 함.
	컨텐츠	여성 개척자와 관련있는 이야기, 사진, 예술 작품및 기념품 컬렉션. 이 외 호주 여성 역사와 관련있는 서고, 비디오 오디오 자료들.
	관장	Lynne Peterkin
13	국가	한국
	이름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건립시기	2002년 09월 12일
	운영주체	여성가족부, 정부 부처
	위치	
	총면적	
	예산	
	주요 컨텐츠	올바른 여성관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회와 교육 실시
	관장	김금래
14	국가	중국
	이름	China Women and Children's Museum
	건립시기	2010년 1월 10일

	운영주체	국립
	위치	베이징
	총면적	35,000 평방 미터
	예산	
	주요 콘텐츠	역사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전시.
	관장	
15	국가	일본
	이름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WAM)
	건립시기	2005
	운영주체	
	위치	2-3-18 Nishiwaseda, Shinjuku-ku, Tokyo 169-0051 AVACO.bld 2F
	총면적	
	예산	
	콘텐츠	일본 군부 성폭력 희생자 전시, 위안부 여성에 관한 연대기 자료를 전시하는 첫 번째 박물관
	관장	Matsui Yayori
16	국가	베트남
	이름	The South Vietnam Women's Museum
	건립시기	1987
	운영주체	
	위치	36 Ly Thuong Kiet St, Hoan Kiem Dist, Hanoi
	총면적	2000평방 미터
	예산	
	콘텐츠	베트남 문화 다양성과 여성의 종대 공헌을 반영하는 작품 전시.
	관장	M.S. Nguyen Thi Bich Van
17	국가	우크라이나
	이름	The museum of woman history and history about woman and gender movement
	건립시기	
	운영주체	
	위치	

118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총면적	
	예산	
	컨텐츠	국민들에게 여성과 젠더 문제를 일깨워주고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결을 공고히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관장	
18	국가	캐나다
	이름	The Women's Art Museum Society of Canada
	건립시기	2006년 10월 02일
	운영주체	소규모의 여성 그룹
	위치	
	총면적	
	예산	
	주요 컨텐츠	여성의 비주얼 아트를 보존하고 보호함
	관장	Danielle LaBrie
19	국가	미국(1)
	이름	The Connecticut Women's Hall of Fame
	건립시기	1994
	운영주체	비영리기관
	위치	Hartford, 코네티컷
	총면적	
	예산	
	컨텐츠	교육 아웃리치 기관으로 코네티컷 여성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을 교육하며, 여성과 여학생의 지속적인 업적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관장	Katherine Wiltshire
20	국가	미국(2)
	이름	Susan B Anthony - American pioneer leader of US Women's Suffrage
	건립시기	1945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뉴욕
	총면적	
	예산	
	컨텐츠	여성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위해 싸운 Susan B. Anthony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
	관장	Deborah L. Hughes

21	국가	미국(3)
	이름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건립시기	1969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뉴욕
	총면적	
	예산	
	컨텐츠	위대한 미국 여성의 업적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관장	Beverly P. Ryder
22	국가	미국(4)
	이름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건립시기	1996
	운영주체	민간 자본 기관
	위치	박물관 근처, 연방 소유의 부지를 허락해달라고 법안 상정중.
	총면적	
	예산	a privately funded institution
	컨텐츠	여성이 역사 형성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 지를 알려주는 컬렉션
	관장	Joan Wages
23	국가	미국(5)
	이름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
	건립시기	1987
	운영주체	국립
	위치	워싱턴 백안관 근처
	총면적	78,810 평방 피트
	예산	
	컨텐츠	여성의 창조적 공헌 인정. 과거 및 현존 혹은 잠재성 있는 여성 예술가 육성.recognizing women's creative contributions
	관장	Susan Fisher Sterling
24	국가	미국(6)
	이름	The Women's Museum: an Institute for the Future
	건립시기	1983
	운영주체	비영리 기관

120 ●●●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위치	2730 Historic Decatur Rd, Suite 103, Barracks 16 San Diego, CA 92106
	총면적	
	예산	
	컨텐츠	여성 역사에 관한 전시회 및 스폰서 워크샵 및 강의 시리즈.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
	관장	Ashley Gardner
25	국가	미국(7)
	이름	Women's History Reclamation Project
	건립시기	1983
	운영주체	비영리기관
	위치	2730 Historic Decatur Rd, Suite 103, Barracks 16, San Diego
	총면적	
	예산	
	컨텐츠	샌디에고에 살았던 여성들의 삶에 대한 컬렉션, 여성 참정권, 여성 권리에 관한 기념품 및 유물 전시,
	관장	Ashley Gardner
26	국가	미국(8)
	이름	99s Museum of Women Pilots
	건립시기	1929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오클라호마, 4300 Amelia Earhart Drive
	총면적	460㎡
	예산	
	주요 컨텐츠	여성 조종사를 위한 박물관, 항공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역사를 다룸,
	관장	Martha Phillips
27	국가	미국(9)
	이름	The Women's Museum
	건립시기	2011년 예산부족으로 폐관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달라스
	총면적	7만 평방 피트
	예산	
	주요 컨텐츠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계층의 미국 여성 역사를 다룸.
	관장	

28	국가	미국(10)
	이름	Northwest Indiana Womens Museum of Gary Indiana
	건립시기	2010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인디애나
	총면적	
	예산	\$ 69,000.00
	주요 콘텐츠	
29	국가	미국(12)
	이름	National Women's Hall of Fame
	건립시기	1969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뉴욕
	총면적	
	예산	
	주요 콘텐츠	위대한 미국 여성의 업적을 인정하고 축하함.
30	국가	미국(13)
	이름	Susan B Anthony - American pioneer leader of US Women's Suffrage
	건립시기	1945
	운영주체	비영리
	위치	뉴욕
	총면적	
	예산	
	주요 콘텐츠	여성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위해 싸운 Susan B. Anthony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
	관장	Deborah L. Hughes

〈부표 2〉 여성박물관 결의안

여성 박물관 결의안(Resolutions of the Women's Museums)

200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Shirin Ebadi는 제 1차 세계 여성 박물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여성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

[주요 토막]

- 제 1차 세계 여성 박물관 회의의 로고는 세계 여성 박물관 네트워크의 로고가 될 것임. 여성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기관이며 우리 사회 전역에 여성 박물관의 가시성 및 수용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
- 여성 박물관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잘 조명해 주는 일을 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문화를 보존하고 생성하며, 선입견을 철폐하고, 여성 및 인권 존중에 기여함.
- 여성 박물관은 일종의 사회적 거울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여성 박물관은 제 1차 세계 여성 박물관 회의의 힘을 박물관 네트워크 가능성을 신장시키는데 사용할 것임.
- 여성 박물관에서는 상호 교환과 학습, 지식 전수, 정보 및 아이디어 공유, 경험 및 전시회 교환, 프로젝트와 전시회 공동 계획을 통해 박물관 네트워크망을 늘리기로 합의함.
- 여성 박물관의 인터넷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www.womeninmuseum.net
- 여성 박물관은 국제화가 좋은 방면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함.
- 각 박물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제 1차 세계 여성 박물관 회의 참가를 통하여 형성된 네트워크에서는 한 목소리로 발언하고 싶음.
- 여성 박물관에서는 제 1차 세계 여성 박물관 회의에서 수립한 프로젝트 계획을 존중하기로 합의함.
- 여성 박물관에서는 여성의 연대감을 포용하여 상호를 원조함. 한 여성 박물관에 문제가 생기면, 한 네트워크로서 행동할 것이며, 청원, 결의안, 서명, 캠페인 등으로 저항의 몸짓을 보일 것임.
- 여성 박물관 네트워크는 인가받지 않은 여성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것임.
- 여성 박물관 네트워크에서는 여성 박물관이 없는 국가에 여성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할 것임.
- 여성 박물관에서는 각 국가 정부에서 강력한 펀딩으로 여성 박물관 하부구조 지원을 요청함.
- 여성 박물관 네트워크에서는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며 가능성을 신장하고 공인된 네트워크로 인정받기를 희망함.
- 여성 박물관은 여성 박물관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계획하는데 기여할 것임.

〈부록 2〉 여성역사박물관 설립에 관한 법률안 [미국]

1. 의안번호 : S. 501 (2005. 7. 29)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05
 - Summary as of : Require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to enter into an occupancy agreement to make the Pavilion Annex (the building and specified immediate surroundings, including any land unoccupied as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in Washington, D.C. available to 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c. (Museum Sponsor)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t least 99 years or any lesser term agreed to by the Museum Sponsor. Prohibits use of any federal funds to establish, construct or operate the museum.

2. 의안번호 : H.R. 6548 (2008. 7. 18)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ortfolio Enhancement Act of 2008
 -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GSA) to Convey to the National Women's

1. 의안번호: S. 501 (2005. 7. 29)
 - 2005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요약: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 후원사)이 워싱턴 D.C.에 있는 파빌리온 별관(해당 건물 및 지정된 인접 환경, 본 법 제정 당시 점유되지 않은 토지 포함)을 최소 99년 또는 박물관 후원사가 합의한 그 이하 기간 동안 국립여성역사박물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달청장에게 요구한다. 박물관 설립, 건설 또는 운영을 위한 연방 자금 사용을 금한다.

2. 의안번호: H.R. 6548 (2008. 7. 18)
 - 2008년 조달청 포트폴리오 강화법
 - 조달청과 박물관이 박물관 시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정된 부동산의 북쪽 부분을 국립여성

History museum, Inc. (the Museum) the northern part of specified propert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which the Administrator and the Museum deem appropriate for a museum facility.

Grants the Administrator the authority to convey the southern part of such property to the Museum.

Requires the Administrator to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Museum for the conveyance.

Permits separate conveyance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Requires the northern part to be dedicated for use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 99-year period and allows the southern part to be used for any purposes permitted b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3. 의안번호 : H.R.1700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09
- National Women's History

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에 양도할 것을 조달청장(GSA)에게 명한다.

해당 부동산의 남쪽 부분을 박물관에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에게 부여한다.

양도를 위해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장에게 요구한다.

북쪽과 남쪽 부분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북쪽 부분을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하며, 남쪽 부분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이 허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의안번호: H.R.1700

- 2009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2009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Museum Act of 2009 – (Sec. 3)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GSA) to convey, by quitclaim deed, to 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c. (the Museum) specified propert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n terms which the Administrator deems appropriate. Requir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veyance to address, among other things, mitigation of developmental impacts to existing federal buildings and structures, security concerns, and operational protocols for development and use of the property.
 Requires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perty to be its market value based on its highest and best use, as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appraisal. Requires the appraisal to assume that the property does not contain hazardous substances which require response action.
 Requires the purchase price to be paid into the Federal Buildings Fund and permits the Administrator to use the proceeds

제3조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정된 부동산을 무담보 양도 증서를 통해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에 양도할 것을 조달청장(GSA)에게 명한다.
 양도 조건에서 특히 기존 연방 건물 및 구조물에 미치는 개발 영향 완화, 보안 문제, 해당 부동산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운영 규약을 다루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의 구매 가격이 독립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근거한 시장 가치가 되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에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 없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구매 가격이 연방건물기금에 지불될 것을 요구하며, 청장이 청장에게 부여된 기존 권한에 부합하는 합법적 목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익

for any lawful purpose consistent with existing authorities granted to the Administrator. Requires specified congressional committees (the committees) to be provided with 30 days advance written notice of any expenditure of the proceeds. Requires the property to be dedicated for use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 99-year period. Provides for the reversion of the property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any obligation for repayment of any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if: (1) it is not used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during the 99-year period; and (2) the Museum has not commenced construction of a museum facility on such property in a five-year period, other than for reasons beyond the Museum's control.

(Sec. 4) Authorizes the Administrator to contract, in an amount not to exceed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perty,

금 지출 시 지정된 의회 위원회(위원회)에 30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을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한다. (1) 해당 부동산이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2) 박물관이 박물관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이외의 사유로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에 박물관 시설 건설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매 가격 금액 상환 의무 없이 해당 부동산이 미국 정부에 반환되도록 규정한다.

제4조 1980년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책임법(CERCLA)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에 요구되는 대응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구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

with the Museum or an affiliate of the Museum to perform response actions required on the property pursuant to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CERCLA). Credits any costs incurred by the Museum or an affiliate to the purchase price. Prohibits anything in this Act or any amendment made by this Act affecting or limiting compliance with any environmental laws.

(Sec. 5) Requires the Museum to bear all costs associated with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cluding studies and reports, relocating tenants, and mitigating impacts to existing federal buildings and structure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property.

(Sec. 6) Prohibits anything in this Act from being construed as limiting or affecting the authority or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or

는 금액 내에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에게 부여한다. 박물관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담한 비용은 구매 가격에서 공제된다. 본 법의 규정이나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이 환경 관련 법률 준수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

제5조 연구 및 보고, 입주자 이전, 기존 연방 건물 및 구조물에 미치는 부동산 개발 영향 완화를 포함하여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박물관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제6조 본 법의 규정이 국립수도계획위원회 또는 미술위원회의 권한이나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금한다. 청장에게 구역 용도 지정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문

the Commission of Fine Arts.
Requires the Administrator to cooperate with the Museum on zoning or other land use matters.
Bars the Administrator from being required to incur any costs for such cooperation.

(Sec. 7) Requires the Museum to submit annual reports to the Administrator and the committees on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ivities of the Museum until the end of the five-year period after conveyance of the property or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museum facility, whichever is later.

4. 의안번호 : S.2129 (2010. 6. 28.)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09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09 - **(Sec. 3)**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GSA) to convey, by quitclaim deed, to the

제에 관해 박물관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협력을 위한 비용 부담을 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한다.

제7조 동산 양도 후 5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박물관 시설이 실질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청장과 위원회에 박물관 개발 및 건설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박물관에 요구한다.

4. 의안번호: S.2129(2010. 6. 28)

- 2009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2009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제3조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정된 부동산을 무담보 양도 증서를 통해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에 양도할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c. (the Museum) specified propert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n terms which the Administrator deems appropriate. Requir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veyance to address, among other things, mitigation of developmental impacts to existing federal buildings and structures, security concerns, and operational protocols for development and use of the property.

Requires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perty to be its market value based on its highest and best use, as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appraisal. Requires the appraisal to assume that the property does not contain hazardous substances which require response action.

Requires the purchase price to be paid into the Federal Buildings Fund and permits the Administrator to use the proceeds or any lawful purpose consistent with existing authorities granted to the Administrator. Requires specified congressional

것을 조달청장(GSA)에게 명한다.

양도 조건에서 특히 기존 연방 건물 및 구조물에 미치는 개발 영향 완화, 보안 문제, 해당 부동산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운영 규약을 다루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의 구매 가격이 독립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근거한 시장 가치가 되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에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 없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구매 가격이 연방건물기금에 지불될 것을 요구하며, 청장이 청장에게 부여된 기존 권한에 부합하는 합법적 목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익금 지출 시 지정된 의회 위원회(위원회)에 30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committees (the committees) to be provided with 30 days advance written notice of any expenditure of the proceeds. Requires the property to be dedicated for use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 99-year period. Provides for the reversion of the property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any obligation for repayment of any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if: (1) it is not used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during the 99-year period; and (2) the Museum has not commenced construction of a museum facility on such property in a five-year period, other than for reasons beyond the Museum's control.

(Sec. 4) Authorizes the Administrator to contract with the Museum or an affiliate of the Museum to perform response actions required on the property. Credits any costs incurred by the Museum or an affiliate to the purchase price. Prohibits anything

해당 부동산을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한다.

(1) 해당 부동산이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2) 박물관이 박물관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이외의 사유로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에 박물관 시설 건설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매 가격 금액 상환 의무 없이 해당 부동산이 미국 정부에 반환되도록 규정한다.

제4조 해당 부동산에 요구되는 대응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박물관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에게 부여한다. 박물관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담한 비용은 구매 가격에서 공제된다. 본 법의 규정이나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이 환경 관련 법률 준수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

in this Act or any amendment made by this Act from affecting or limiting compliance with any environmental law.

(Sec. 5) Requires the Museum to bear all costs associated with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cluding studies and reports, relocating tenants, and mitigating impacts to existing federal buildings and structure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property.

(Sec. 6) Prohibits anything in this Act from being construed as limiting or affecting the authority or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 or the Commission of Fine Arts. Requires the Administrator to cooperate with the Museum on zoning or other land use matters. Bars the Administrator from being required to incur any costs for such cooperation.

(Sec. 7) Requires the Museum to submit annual reports to the

는 것을 금한다.

제5조 연구 및 보고, 입주자 이전, 기존 연방 건물 및 구조물에 미치는 부동산 개발 영향 완화를 포함하여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박물관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제6조 본 법의 규정이 국립수도계획위원회 또는 미술위원회의 권한이나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금한다. 청장에게 구역 용도 지정 또는 기타 토지 사용 문제에 관해 박물관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협력을 위한 비용 부담을 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한다.

제7조 부동산 양도 후 5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박물관 시설이 설

Administrator and the committees on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ivities of the Museum until the end of the five-year period after conveyance of the property or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museum facility, whichever is later.

5. 의안번호 : S.680 (2011. 5. 2)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1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1 - **(Sec. 3)**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GSA) to convey, by quitclaim deed, to 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c. (the Museum) specified property (commonly known as the "Cotton Annex" site)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n terms which the Administrator deems appropriate.

Requires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perty to be: (1) its market value based on its highest and best use, as determined by

질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청장과 위원회에 박물관 개발 및 건설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박물관에 요구한다.

5. 의안번호: S.680(2011. 5. 2)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제3조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정된 부동산(일반적으로 "코튼 별관" 부지로 알려짐)을 무담보 양도 증서를 통해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에 양도할 것을 조달청장(GSA)에게 명한다.

해당 부동산의 구매 가격이 (1) 해당 부동산에 해당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이 요구되는 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오염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독

an independent appraisal perform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perty does not contain any hazardous substances, waste, or pollutants requiring a response under applicable environmental laws; and (2) paid into the Federal Buildings Fund. Requires the property to be dedicated for use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 99-year period. Prohibits using federal funds to purchase the property or design and construct any facility on such property. Provides for the reversion of the property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any obligation for repayment of any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if: (1) it is not used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during the 99-year period, and (2) the Museum has not commenced construction of a museum facility on such property in a 5-year period other than for reasons beyond the Museum's control.

립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근거한 시장 가치가 되며 (2) 연방건물기금에 지불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을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 구매나 해당 부동산의 시설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연방 자금 사용을 금한다.

(1) 해당 부동산이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2) 박물관이 박물관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이외의 사유로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에 박물관 시설 건설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매 가격 금액 상환 의무 없이 해당 부동산이 미국 정부에 반환되도록 규정한다.

(Sec. 4) Authorizes the Administrator to contract with the Museum (or an affiliate) to address any contamination on the property. Directs any nonfederal funds used by the Museum on the Administrator's behalf in response to any such contamination to be credited to the purchase price of the property.

Prohibits: (1) the availability of federal funds for such a credit, and (2) any credit from exceeding the purchase price.

(Sec. 5) Directs the Museum to bear any costs of complying with this Act (subject to the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to address any contamination), including studies, reports, surveys, relocating tenants, and mitigating impacts to existing federal buildings and structures.

(Sec. 6) Sets fort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dministrator with respect to any zoning or land use matters

제4조 해당 부동산의 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박물관(또는 그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에게 부여한다. 해당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이 청장을 대신하여 사용한 비연방 자금은 부동산 구매 가격에서 공제할 것을 명한다.

(1) 그러한 공제를 위한 연방 자금 사용과 (2)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공제를 금한다.

제5조 연구, 보고, 조사, 입주자 이전, 기존 연방 건물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완화를 포함하여 본 법 준수를 위한 모든 비용(모든 오염을 처리해야 할 청장 책임 적용)을 박물관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제6조 박물관 개발과 관련한 구역 용도 지정 또는 토지 사용 문제에 관한 청장 책임을 규정한다.

relating to the Museum's development.

(Sec. 7) Requires, for a five-year period or until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museum facility (whichever is later), an annual report to Congress and the Administrator detailing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ivities.

6. 의안번호 : H.R.1269 (2011. 3. 30.)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1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1 —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GSA) to convey, by quitclaim deed, to 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c. (the Museum) specified propert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n terms which the Administrator deems appropriate.

Requires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perty to be: (1) its market value based on its highest

제7조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박물관 시설이 실질적으로 완공될 때까지(둘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의회와 청장에게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상세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6. 의안번호: H.R.1269(2011. 3. 30)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정된 부동산을 무담보 양도 증서를 통해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에 양도할 것을 조달청장(GSA)에게 명한다.

해당 부동산의 구매 가격이 (1) 독립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근거한 시장 가치가

and best use, as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appraisal; and (2) paid into the Federal Buildings Fund.

Requires the property to be dedicated for use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 99-year period.

Provides for the reversion of the property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any obligation for repayment of any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if: (1) it is not used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during the 99-year period, and (2) the Museum has not commenced construction of a museum facility on such property in a 5-year period other than for reasons beyond the Museum's control.

7. 의안번호 : H.R.2844 (2011. 9. 7)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nd Federal Facilities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11

- National Women's History

되며 (2) 연방건물기금에 지불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을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한다.

(1) 해당 부동산이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2) 박물관이 박물관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이외의 사유로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에 박물관 시설 건설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매 가격 금액 상환 의무 없이 해당 부동산이 미국 정부에 반환되도록 규정한다

7. 의안번호: H.R.2844(2011. 9. 7)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및 연방 시설 통합, 효율성법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및 연방

Museum and Federal Facilities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11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1 -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GSA) to convey, by quitclaim deed, to the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c. (the Museum) specified property (commonly known as the "Cotton Annex" site)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n terms which the Administrator deems appropriate.

Requires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operty to be: (1) its market value based on its highest and best use, as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appraisal perform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perty does not contain any hazardous substances, waste, or pollutants requiring a response under applicable environmental laws; and (2) paid into the Federal Buildings Fund.

Requires the property to be dedicated for use as a site for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for a 99-year period.

시설 통합, 효율성법 - 2011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법 - 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내 지정된 부동산(일반적으로 "코튼 별관" 부지로 알려짐)을 무담보 양도 증서를 통해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법인(박물관)에 양도할 것을 조달청장(GSA)에게 명한다.

해당 부동산의 구매 가격이 (1) 해당 부동산에 해당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이 요구되는 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오염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독립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근거한 시장 가치가 되며 (2) 연방건물기금에 지불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을 99년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부지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한다.

Prohibits using federal funds to purchase the property or design and construct any facility on such property.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National Gallery of Art Facility Consolidation, Savings, and Efficiency Act of 2011 - Requires the Administrator, not later than December 31, 2012, to transfe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custody, and control of the building located at 600 Pennsylvania Avenue, NW, in Washington, DC, to the National Gallery of Art and to name such building as the North Building of the National Gallery of Art.

Requires the National Gallery of Art to pay the costs of remodeling, renovating, or reconstructing such building. Prohibits the use of appropriated funds for the initial costs of such activities.

Requires the Administrator to relocate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employees and operations housed in such building to specified space in the

해당 부동산 구매나 해당 부동산의 시설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연방 자금 사용을 금한다.

2011년 연방거래위원회 및 국립미술관 시설 통합, 절약, 효율성법 - 2012년 12월 31일까지 워싱턴 D.C. 내 주소지 600 Pennsylvania Avenue, NW에 위치한 건물의 운영 관할권, 관리권, 통제권을 국립미술관에 양도하고 해당 건물을 국립미술관 북쪽 건물이라 칭할 것을 청장에게 요구한다.

국립미술관이 해당 건물의 개조, 보수 또는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활동의 초기 비용에 세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해당 건물에 수용된 연방거래위원회 (FTC) 직원 및 업무를 워싱턴 D.C. 내 주소지 400 7th Street, SW에 위치한 헌법 센터로 알려진 임대 건물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전할 것은 청장에게 요

leased building known as the Constitution Center located at 400 7th Street, SW, in Washington, DC. Directs the Administrator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to execute an occupancy agreement to assign or sublease such space.

Eliminates existing FY2012–FY2013 appropriations authorizations for the GSA's: (1) energy and water retrofit and conservation measures program, and (2) wellness and fitness program.

8. 의안번호 : H.R.6421 (2012. 9. 14)

– Commission to Study the Potential creation of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2

– Commission to Study the Potential Creation of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ct of 2012 – Establishes the Commission to Study the Potential Creation of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to

구한다. 해당 공간을 배정하거나 전대 (sublease)하기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 할 것을 청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명한다.

GSA의 (1) 에너지 및 수도 보장 및 보존 조치 프로그램과 (2) 건강 및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존 FY2012–FY2013 세출 승인을 철회한다.

8. 의안번호: H.R.6421 (2012. 9. 14)

– 2012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설립가능성 연구위원회법

– 2012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설립가능성 연구위원회법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설립가능성 연구위원회를 수립하고 워싱턴 D.C. 소재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행동 계획과 관련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submi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a report containing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 plan of ac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 Washington, D.C. Requires the Commission to be composed of eight members. Directs the Senate Majority Lead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nate Minority Leader, and House Minority Leader to each appoint two Commission members. Directs the Commission to: (1) report on issues including potential locations for the Museum and whether it should be part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2) develop a fundraising pla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Museum through contributions from the public. Authorizes the Commission to employ and compensate an executive director and other necessary personnel. Terminates the Commission

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하원 의장,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두 명의 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것을 명한다.

위원회에 (1) 박물관 위치 후보와 해당 박물관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일부가 되어야 할지 여부를 포함한 사안에 대한 보고와 (2) 일반 대중의 기부를 통해 박물관 설립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 수립을 명한다.

총책임자 및 기타 필요 인력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

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최종 보고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it has submitted its final reports pursuant to this Act.
Prohibits federal funds from being obligated to carry out this Act.

9. 의안번호 : S.3567 (2012. 9. 19)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Commission Act of 2012
—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Commission Act of 2012
— Establishes the Commission to Study the Potential Creation of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to submi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a report containing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 plan of ac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n Washington, D.C.

Requires the Commission to be composed of eight members.
Directs the Senate Majority Lead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nate Minority Leader, and House Minority

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위원회를 해산한다.

본 법 시행 의무를 연방 자금에 지우는 것을 금한다.

9. 의안번호: S.3567(2012. 9. 19)

— 2012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위원회 법
— 2012년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위원회 법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설립가능성 연구위원회를 수립하고 워싱턴 D.C. 소재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행동 계획과 관련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하원 의장,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두 명의 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것을 명한다.

Leader to each appoint two Commission members.

Directs the Commission to: (1) report on issues including potential locations for the Museum and whether it should be part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and (2) develop a fundraising pla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Museum through contributions from the public.

Authorizes the Commission to employ and compensate an executive director and other necessary personnel.

Terminates the Commiss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it has submitted its final reports pursuant to this Act.

Prohibits federal funds from being obligated to carry out this Act.

위원회에 (1) 박물관 위치 후보와 해당 박물관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일부가 되어야 할지 여부를 포함한 사안에 대한 보고와 (2) 일반 대중의 기부를 통해 박물관 설립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 수립을 명한다.

상임이사와 기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

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위원회를 해산한다.

본 법 시행 의무를 연방 자금에 지우는 것을 금한다.

Abstract

A study on an innovative management of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Toward establishment of a tentatively named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e-Gyung Yang
In-Soon Kim
Sung-Sook Lee
Choon-Ah Lee
Seon-Gyeong Choi

Recently, the world has seen a trend of actively establishing a museum for female and of invigorating exchanges among existing museums to preserve and record female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social development. The trend could be largely associated with proposition of the necessity to overcome composition of the existing museums with blindness of gender-sensitiveness in the wave of heightening acknowledgement of 'history looked at by female' in the world.

Establishing tentatively named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is

desperately needed in terms of applying a female cultural legacy into a policy. Any added value cannot be produced because the female cultural legacy that is well known is no more than a cultural phenomenon which should be protected. Active capitalization of the female cultural legacy is needed as the means of making female policy, based on acknowledgement for female as a cultural resource and a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main agent. It must be fit for a directing point of policy for female to ultimatel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female through improving acknowledgement on the female cultural legacy and making historical and cultural status of female new and enriched.

The project of establishing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as the representative of policy for female by a Gender Equality & Family department, to some degree, helped improvement of female status to spread gender equality culture with hard time of carrying it out. However, in the face of 10th anniversary of its opening, meaning of the policy for establishing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should be reinforced and be needed to find a way of developing into establishing tentatively named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that is suitable for the world trend and the national status.

With the background abov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necessity of setting up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cases of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a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composition of the museum for female and the way of its display, the way about how to carry out establishing the museum for female. For this purpose, benchmarking the museum in the USA called NWHM and other museums allowed us to have good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domestic cases of establishing the museum for acquir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change of law for establishing the museum. This

study presented the specific place and the way of carrying out establishing the museum. Ye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our people, based on formation of a social consensus of women, could certainly help establishing the museum for women.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16

**「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
「(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2012년 12월 28일 인쇄

201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538-1 93330

<정가 9,500 원>